

GOKSENG CULTURE MAGAZINE

# 곡성문화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 / 옥과향교



곡성문화원

[www.gs-culture.or.kr](http://www.gs-culture.or.kr)

##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곡성문화원 문화예술진흥추진 사업

#### 주요사업

##### 문화행사의 개최

-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회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 대회
-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지역 문화교실

- 다도강좌
- 서예강좌
- 외국어 회화 강좌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지역향토자료 조사
- 내 고장 곡성 발간
- 어린이 신문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
- 곡성역 관광안내도 제작

##### 향토사료 발간

- 곡성의 세시풍속
- 곡성의 문화재
- 월파집
- 청계동사
- 곡성누정록
- 국역 조선환여승람 곡성편
- 총정공 마천목장군
- 곡성실록(조선왕조실록 곡성편)
- 사찬 곡성군지
- 이외 20여종 발간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 문화 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전통차 보급 및 시음회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곡성문화원」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투고안내: ☎516-805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76-4 곡성문화원  
전화: 061) 362-0890 전송: 061) 363-7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gs-culture.or.kr

# 곡성문화

## 곡성문화 동지 통권 제4호

- 발행인 / 양병하
- 편집 / 조준원
- 감수 / 배숙영
- 디자인 / WITHDESIGN
- 발행처 / 곡성문화원
- 발행일 / 2003년 7월 7일
- 전남 곡성군 읍내리 776 - 4
- 전화 / 061) 362 - 0890
- 전송 / 061) 363 - 7300
- 홈페이지 / www.gs-culture.or.kr



### 표지이야기 / 곡성 옥과향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인 옥과향교는 옛 지역인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현재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곡성의 교육환경의 현실과 참된교육의 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며, 옥과향교와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풍속화를 통해 지역문화의 이상과 현실적 환경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 CONTENTS

- 02\_ 문화의 뜰 / 내 작품 속의 곡성, 목사동 가는 길
- 04\_ 문학기행 / 강진을 찾아서
- 08\_ 문학속의 곡성 / '자운명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 중에서
- 10\_ 문화의 창 / 드라마 '허준' 다시보기
- 12\_ 곡성의 전설 / 원효대사와 신송경장군
- 13\_ 조선왕조실록의 곡성생활상 / 기후
- 14\_ 지명유래 / 옥과면
- 16\_ 곡성의 역사 / 곡성군 연혁
- 18\_ 문화유산 / 곡성군 문화재
- 26\_ 곡성의 독립운동가 / 그들의 유일한 꿈 - 대한독립
- 32\_ 문화원 탐방 / 나주시문화원
- 34\_ 특별기고 / 지리산권이 전 · 남북의 오지로...
- 36\_ 마음의 편지 / 할머니께 드립니다
- 37\_ 문화시설탐방 / 옥과공공도서관
- 38\_ 곡성문화재 안내지도
- 40\_ 전국 문화원 2003년 시간안내



## 내 작품속의 곡성 목사동 가는 길

글 · 최정주(소설가)

목사동에 가면 마당이 넓어 날마다 햇살 넉넉한 집이 있습니다. 삼백 예순 날 배밭을 가꾸어도 배밭에 한번도 안 나간 것 같은 고운 얼굴의 안주인과 어찌다 산책삼아 배밭에 나가도 혼자서 배농사를 다 지은 얼굴의 소설 쓰는 바깥양반이 사는 집인데요. 사랑싸움 뒤끝이거나 떠난 사랑으로 가슴에 꽃병이 들어 아픈 날이면 주인 몰래 한 번 다녀오십시오. 운 좋은 날이면 사철가 한 가락 들을 수도 있구요. 주인에게 들키면 사랑같은 배맛도 볼 수 있지요. 그 해 늦가을 어떤 시인은 그 집의 실박한 돌팍 위에서 옹골진 사랑 하나 일구어낸 역사가 있는 집입니다-

벌써 칠팔 년 전이던가, 곡성 목사동의 소설 쓰는 이재백 선생댁을 다녀온 날 밤에 쓴 '사랑 103'이라는 시다. 구태여 어쭙잖은 시 한편을 들고 나오는 까닭은 이 시 속에 내 곡성 사랑, 혹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곡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 진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백제 안테봉 선생님이 계신 곳, 그 분과 마시던 막걸리가 가슴에서 그리움으로 끓는 곳이기도 하고, 목사동 이재백 선생댁의 키 큰 해나무와 대바람소리와 정절처럼 붉은 동백꽃과 세월의 냄새가 풍기는 고서들과 사랑보다 달콤한 배맛이 내 가슴에 삼십육점 오도짜리 난로를 피운다. 어찌다 가끔 바다가 그리워 여수행을 할 때 곡성을



지나가다 보면 내 고개는 늘 곡성을 향해 있다.

'저기 어디 쯤이 백제선생님과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 마시던 광주집이 있는 곳이지?'

늦은 밤 선생님의 부음을 듣기 며칠 전에도 선생님과 그 막걸리 집에 있었다. 그날 선생님은 곡성이 바로 심청의 고장이라면서 내게 몇 권의 책과 시디 한 장을 주셨다.

"남원에 춘향이가 있다면 곡성에는 심청이 있다네. 따지고 보면 고전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 설화나 민담을 소리꾼이나 이야기꾼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퍼뜨린 것이 아니던가? 관음사기에 나오는 홍장이야말로 심청의 원형이 아닌가? 최작가가 글로 써 보게. 동화로도 좋고 소설로도 좋네. 춘향전 이상의 의미있는 작품이 나올걸세. 그걸 우선은 곡성사람들한테 읽혀야겠지. 홍장이 바로 심청이라고 곡성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작가인 자네나 내가 할 일일 걸세."

그때 백제 선생님은 심청이 곡성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셨다. 선생님은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그날 이후 홍장은 내게 큰 화두로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은 과연 작가인 내가 홍장이 바로 심청이라는 곡성 사람들의 믿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백제 선생님이 내게 홍장이라는 여자를 화두로 주시기 전에도 내 많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곡성이 등장했다. 어른들을 위한 사랑 동화 '조팝꽃과 산벚꽃의 사랑이야기'에서는 남원에서 곡성 압록을 거쳐 목사동까지 가는 길과 목사동 배꽃 아래에서의 하룻밤 얘기를 달빛을 받은 배꽃처럼, 혹은 그 배꽃 사이에서 우는 소쩍새 울음처럼 그려낸 일도 있고, 전생과 이생을 오가는 사랑 얘기를 쓴 '천애'라는 소설에서는 사라진 사랑을 찾아 주인공이 목사동 마당 넓은 집과 하얀 배꽃밭을 헤매는 삽화를 삽입하기도 했다. 또한 갑오경장부터 1980년 광주까지의 근현대사를 다룬 대하소설 '사람의 강'에서도 곡성은 사건의 현장으로, 공간적인 배경으로 아주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다. 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어떤 고장을 자주 공간적인 배경으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그 작가가 그만큼 그 고장을 사랑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곡성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내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곡성에 애착이 가기 때문일 것이다.

한 작가가 한 고장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 태어난 고향이라던지, 아니면 그리운 사람이 살고 있다던지, 그것도 아니면 작가를 끌어당기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환상하도록 좋은 자연풍광일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다. 어찌면 부끄러운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조팝꽃과 산벚꽃을 만난 것도 곡성에서 압록을 거쳐 목사동 가는 길에서 였다.

이 땅의 산자락 어디에나 피어있는 조팝꽃이나 산벚꽃이, 그 전에도 봄이면 눈이 시리도록 보아왔던 그 꽃들이 의미있게 다가 온 것도 소설가 이재백 선생을 만나러 가던 목사동 길에서 였다. 무심히 지나쳤던 조팝꽃이나 산벚꽃이 의미있게 다가 올 만큼 목사동길은 늘 내게 행복한 길이었다.

목사동 길이 행복한 만큼 나는 곡성을 사랑한다. 홍장이라는 효성 지극한 한 여인을 탄생시킨, 곡성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한다.



# 강진을 찾아서

(자매결연과 문학기행)

고동실(곡성주부독서회"자운영"회장)



# 아

아침 일찍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보니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제법 대지를 적시고 하늘 마저 온통 먹장구름으로 수를 놓고 있다.

오늘 문학기행 일정에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조바심에 우산까지 챙겨 들고 서둘러 도서관으로 발길을 재촉하니 먼저 도착한 회원들이 도서관 현관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자운영 소식지와 기념품 등을 점검하고 버스에 승차하니 9시 20분, 예정보다 조금 늦게 강진 문학기행 길에 올랐다.

신경림 『시인을 찾아서』, 황인경 『소설 목민심서』, 정재훈 『문화의 산길들길』, 개마서원 발간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등의 여러 출판 서적에 묘사된 강진군의 신비에 흠뻑 취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묘하게 떨려온다.

보성군을 경유하여 장흥군에 접어들면서 햇님이 살포시 미

소를 피우기 시작하며 산등성이 마다 진분홍 진달래와 노오란 개나리가 여러 가지 다른 빛깔들과 야단스럽게 뒤섞여 우리를 반겨준다.

오전 11시20분 강진공공도서관에 도착하여 예정대로 강진 주부독서회와 곡성공공도서관 자운영어머니 독서회와의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강진과 곡성의 독서회 연혁 소개 및 준비해간 자운영 소식지 30부를 기증하고 향후 지속적인 만남과 정보교환 등을 약속하며 자매결연서 서명 및 교환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지난해의 약속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강진도서관측에서 마련한 점심을 먹고 강진주부독서회 회원들과 김영랑 생가를 찾았다.



△ 김영랑생가

김영랑 생가 정면에는 시인의 대표작『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새긴 시비가 서 있고, 측면에는 영랑선생이 9세때 직접 심은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풍채를 드러내며 우리를 내려본다.

행랑채를 따라 정갈한 마당에 들어서니 본 채가 안정감 있게 우뚝 서 있고 집 둘레에 몇 그루의 동백나무가 붉은 꽃을 머금은 게 대숲과 어우러져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마당앞 맑은 새암』의 소재가 된 우물이 마당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청량한 맑은 시샘을 아로새겨지게 하며, 연못주변에는 모란이 무리지어 초록잎사귀를 흔들고 동백나무, 살구나무, 돈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갖가지 화초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동쪽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기니, 문학만큼 소리를 좋아했던 영랑선생의 노랫소리가 여러 문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내 귀가에 스치는 것 같다.

뒷마루에 서서 멀리보이는 산자락 풍경들과 맑고 높은 하늘 그 모든 것이 모국어의 음악적 매력을 떠올리며 생가에서 느끼는 영랑선생의 한편 한편의 시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이슬 같은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영랑생가를 나와 강진주부독서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다산초당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니 1시30분 강진문화원 사무국장과 영랑문화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소설가 송하훈선생의 다산 정약용과 강진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목민심서』『흠휼심서』『경세유표』등 수백 권의 저서를 강진 다산초당에서 탈고하신 것과 산과 물이 어우러진 수려한 강진을 자랑하시면서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지으신다. 송국장님의 강의 내용 중 "다산초당"의 겉모습만이 아닌 『목민심서』등을 저술하게된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민초들의 삶을 투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다산초당을 오르는 길가에는 온갖 풍상을 겪은 듯한 소나무와 동백나무 등 갖가지 야생식물들이 자라면서 솟아 나온 뿌리들이 층계를 이루며 답사객들의 발에 밟히면서 기름진 흙속으로 숨어들고 있다. 울창하게 우거진 수목 때문인지 온몸을 감싸주는 신비한 기운과 신선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느낌이 좋다. 역시 자연은 위대한 것인가 보다.

듬성듬성 길을 막고 있는 바위들을 피해 조심조심 오르다보니 중턱어귀에 다산선생의 18번째 마지막 제자인 윤종진 선생의 묘소가 보인다.

본래 다산 초당은 윤종진선생의 해남 윤씨 가문에서 문중 후학들의 독서·강학을 위해 마련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것을 강진에 유배 온 다산을 위해 1,000여권의 서적과 함께 윤단이라는 분계서 제공하셨다고 한다.

비탈길을 오르다보니 "丁石"이라고 새겨진 바위가 눈에 띈다. 다산께서 지나긴 귀향생활의 해배을 앞두고 이곳에 머물다 간다는 표시로 직접 새겼다는 글씨가 2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이 남아 있다. 다산께서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던 "서암"이 표지판과 함께 서있고 선생이 직접 샘을 팠다는 "약천"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이끼와 함께 다람쥐가 기웃거리는 풍경이 원생림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산간 중턱임을 절로 느끼게 한다.

다산초당 앞마당에는 제법 평평한 돌이 위치하고 있다. "다조"라고 칭하는데 당대의 고승 초의선사와 차를 나누며 "다도"를 논하던 바위라고 한다.

초당 좌측면에 4-5평 남짓 크기의 "연지"가 나오고 그 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잉어 몇 마리가 주위를 노닐고 있다. 제법 조선시대의 자연미를 살린 정원의 정취가 느껴진다.

은근한 갈증에 마시는 약수의 감미로운 맛이 혀끝을 자극한다. 연지를 뒤로하고 몇 걸음 나아가니 선생이 기거하셨던 "다산동암"이 조용히 반겨준다. 언덕을 조금 올라 "천일각"에 멈춰 서 본다. 원래 선생이 주거하실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고 1970대에 들어와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누각이라고 한다.

천일각에서 내려다본 강진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눈앞에 드넓은 풍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펼쳐지는데 발 아래에는 소나무, 동백나무, 배롱나무 등의 상록숲이 우거져 있고 자연의 끝자락 강진고을의 갈대밭과 어우러진 강진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눈앞에 보이는 갯가는 "구십포"로 아홉 고을의 물이 모여 포구를 이룬다는 뜻으로 "구강포"라고도 하며 이것이 천일각에서 보이는 "강진만"이다.

다산초당을 바라보며 '지붕이 분명 초가집일 터인데' 기와로 올려져 복원되어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다소 씁쓸하다.

선생이 귀향에서 풀려난 후, 오랜 세월이 흘러오며 돌보는 이가 없어 폐가가 되었고, 지금의 "다산초당"은 1950년대에 다산유적 보존회에서 건립했다고 하며 추사 김정희선생의 현판글씨도 진품이 아닌 복사품 이라고 한다.

"천일각"에서 북쪽으로 8백여 미터 거슬러 가면 고려 원묘국사가 백련결사를 일으킨 천년고찰 백련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정에 따라 다음을 기약하며 다산초당을 내려와야 했다.

초당이 위치한 산 주변에는 야생차가 많이 자라고 있어 예로부터 이곳을 "다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이 산의 지명을 따서 선생께서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초당을 내려오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통찻집에 잠시 머물며 다산야생차의 녹향을 음미하고 싶지만 이별을 아쉬워하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 다산초당



△ 곡성·강진 주부독서회원들과 함께

고려청자 박물관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강진주부독서회 회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그들의 강진 고  
향사랑이 풋풋한 정과 함께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든다

청자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는 강진군 대구면 일대는 9세기에서 14세기까지 고려청자를 제작하였던  
지역으로, 우리나라 청자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청자의 보고(寶庫)"이며,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1963년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고려청자박물관 도우미의 안내를 받으며 제1전시관에 입실하니 12세기 청자상감운화문매병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한다.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1억이다"라고 대답하며 이곳에 소  
장되어 있는 도자기는 모두 진품이며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다고 말한다.  
"청자양각연판문대접", "청자연각연판문주자", 청자양인각연당초문접시"가 수줍은 듯 자태를 살포시  
드러내는 것이 눈에 띈다.

2층 전시관에 들어서니 고려 도공들이 청자를 제작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인형으로 제작하여 내관 객  
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져 있으며 국보급 "나전대모국당초문염주합"은 일본에서 소  
장하고 있다는 말에 왠지 일본을 향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박물관 뒤편에는 1977년 사단법인 "고려청자재현추진위원회"로 출발하여 1986년 강진군 산하가 된  
고려청자사업소 연구작업장에서 25명의 도공이 청자의 재현 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청자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특징이 마련되어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도공과 잠시 나는 담소를 끝으로 고려청자박물관과 작별을 고하였다.  
5시 강진읍을 향하여 달리는 버스에서 "봄날은 간다"를 촬영하였던 해변을 잠시 바라보며 내 자신이  
영화 속 여주인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곡성으로 돌아오는 길은 들뜬 가슴을 재우며 김영랑선생의 순수한 문학세계와 다산 정약용선생의 위  
민 사상 그리고 이름 모를 고려 도공들이 청자를 통해 추구했던 예술세계를 되새겨 보면서 짧았던 하  
루동안의 문학기행을 마감하였다.

7시 20분 곡성공공 도서관에 도착하여 서로의 들뜬 가슴을 뒤로하며 서둘러 귀가 길에 올랐다.

# 태안사 가는 길에서

클·공신옥(소설가)

태안사 가는 길은 참 좋습니다. 그림처럼 예쁜 보성강이 옆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강은 늘 보아도 신비롭습니다. 저렇게 예쁜 물이 어디서 생겨나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흘러가는 것일까요. 물을 보면 사람 마음이 왜 그렇게 맑아지는지요. 흐르는 물을 보면 시끄럽고 시끄러웠던 마음이, 영킨 실타래 같았던 가슴이 고요하고 또 고요해집니다. 태안사 가는 길에 물이, 보성강 물이 있습니다. 그 물길이 끝나는 지점이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지요. 아닙니다. 물길은 끝나지 않고 다만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 물길의 중간에 나 있을 따름이지요. 물길이 끝났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이어 숲이 숲길이 시작될 테니까요.

여름숲도 좋지만 겨울숲은 또 나름대로 외로워서 좋습니다. 높아서 좋습니다. 야위어서 좋습니다. 여름숲의 무성함, 풍성함, 운택함에 한동안 외로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을 때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외로울 때는 또 외로워서 좋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안 내리는 겨울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외로운 나무 끝에 펼쳐져 있습니다. 새들이 야윈 나뭇가지 사이로 포롱포롱 날아다니는군요. 가슴은 더더욱 텅 비어갑니다. 텅 빈 가슴에 겨울 산사의 풍경 소리만이 가득 차 오릅니다. 절마당 한켠에 사시사철 섬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들이키면서 하늘을 봅니다. 까닭 모를 눈물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속세의 사람 눈에 절 사람들은 사뭇 고요하고 엄숙해 보입니다. 적요한 절 마당을 노스님이 천천히





가로질러 갑니다. 감히 말을 붙여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젊은 스님은 입을 꼭 다물고 소리도 없이 재빠르게 절 담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빛도 마주치지 못할 찰나인 것 같습니다. 절 뒤쪽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곳으로 불경스럽게도 다가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절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고양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긋 웃자 노인의 얼굴이 한순간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가졌더군요. 아닙니다.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도둑고양이를 아기 얼굴을 가진 태안사 불목하니 그 노인이 혼자 숨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다람쥐처럼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그를 보러 나는 태안사에 가곤 합니다. 고양이, 해탈이는 잘 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절 사람들은 노인을 이처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를 보면 바짝 반가워하는데도 그는 반가운 내색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그와

헤어지는 게 못내 섭섭해 작별인사가 길어지는데도 그는 그저 가라고 손짓 한번 해주고 그만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이제 그조차 익숙해졌습니다.

태안사 가는 길은 참 좋습니다. 물이 있고 곧이 어 숲이 있고 해탈이가 있고 다람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줄 아는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와 어떤 특별한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는 내 속의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모를 테지요.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커다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 또한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좀더 가난해지고 좀더 외로워지면 그럴 수 있을는지요. 하기사 태안사의 그는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않는 그저 '그' 일 따름이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때로는 거추장스런 장신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 발제를 허락 해 주신 '청적과비명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의 저자인 공선목님께서는 1963년 곡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 드라마 허준 다시 보기

이재백(민족작가 협의회 곡성지회장)

## 마

태양아래서 이름을 빛내며 살기는 쉬운 법이란다.

어려운 것은 아무도 모르게 땅 속을 흐르며 묵마른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것이란다.

그분은.....그런 분이셨다.

진심으로 병자를 사랑한 심의였지.

몇 년 전에 방송된 텔레비전드라마 "허준"의 마지막 장면 대사다.

예진의 옆에는 나중에 내이가 될지도 모른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다. 무덤 옆에서 허준을 애도하며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예진에게 어린아이는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드라마가 종영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의문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설명한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감동과 함께 다가온 짜릿한 전율.

너무나 진한 색깔로 오랫동안 뇌리에서 사라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색깔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검은 색, 빨간색 그렇지 않으면 노란 색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지어져야 하지만 거기엔 어떤 이름의 색깔도 대입할 수 없었다. 색깔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뛰어난 문학작품이나 명화(名畵) 명곡(名曲)에는 이런 이름이 붙게 마련이다. 일회용으로 그치고 말 드라마라 하지만 어엿한 예술의 장르에 속하는 것 아닌가.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한 색깔의 이름조차 명명할 수 없는 이 드라마가 인간의 영혼까지 지배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느낌의 파동이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문해야 할까. 시청자의 흥미를 만끽시킨 것에 대한 의문이 아니다..

이 드라마가 남겨주는 재미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여운에 대한 감

동이 중요한 것이다..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의 영검스러움까지 가세하는 형상으로 전신을 무섭게 조여오는 이유는? 드라마의 차원을 넘어선 음파(音波), 가슴을 적시는 음률(音律)이라 풀이할까.....

## 허준

1546-1615 조선 명종-광해조 시대의 인물이다. 당시의 명의(名醫)로서 의학서 동의보감(전 25권)을 편술 우리 나라 의학 실력을 일본 및 청나라에 널리 과시하였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원(淸源), 김포 출신, 할아버지 곤(琨)은 경상도 우수사, 아버지 윤도 무관으로서 용천 부사를 지냄.

70년도 후반 이은성 극본 "집념"으로 방영, 김무생 주연.

그 후 허준 일대기를 신문연재소설로 발표. 그러나 선생이 집필을 다 마감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 창작과 비평사에서 소설집으로 (전 3권)출간 베스트셀러가 됨. "소설 동의보감" 91년도에 MBC에서 서인석 주인공으로 방영.

영화로도 됨.

99년 MBC에서 최완규 극본, "허준"으로 방영..

동의보감을 편술한 의인 허준을 주제로 드라마화 한 과정을 나름대로 그려보았다.

소설 동의보감 주인공 허준이란 극중 인물의 매력에 의해서 이 드라마가 성공을 거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치졸한 캐릭터로 분장된 유도지. 예진을 등장시켜 허준과 함께 삼각 멜로 구조를 만들고 살리에르의 고뇌를 표출시키면서 허준을 모자르트로 만들어 흥미를 가미시킨다.

유배지에서 동의보감을 완성한 허준은 광해군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산음으로 귀향 병자를 돌보다 죽는다...

아이 내의녀님...

예진 ...

아이 내의녀님...

예진 왜 그러느냐?

아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진 ...내가...평생을 가슴에 두고 존경한 분이란다.

아이 뭐 하셨던 분이니까?

예진 의원이었다.

아이 ...

예진 그분은...

그분은... 땅 속을 흐르는 물 같은 분이셨지...

아이 ...

예진 태양 아래서 이름을 빛내며 살기는 쉬운 법이란다... 어려운 것은... 아무도 모르게 땅속을 흐르며 목마른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거지. 그분은 그런 분이셨다.

진심으로 병자를 사랑한 심의셨어...

아이 내의녀님...

예진 왜 그러느냐?

아이 그분은 내의녀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진 ...

아이 ...

예진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아이 ...

예진 내가 죽어 땅 속에 흐르는 물이 되어 만난다면, 그땐... 그땐... 꼭 여쭙어 봐야겠다.

허준의 무덤 옆에 여자아이와 함께 나타난 예진의 모습은 너무나 처연하다. 감정은 외부에 표출시키지 않는다. 가슴속 깊이 숨겨진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숨겨진 그 비밀, 색깔의 깊이까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감할 것이다. 누구나 진한 사랑, 아모레 아모레미를 한번쯤은, 하고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영혼의 울림으로 변화된다. 열정적인 사랑, 격렬한 사랑, 사랑이란 언어를 일절 거부하면서도 진국같은 사랑의 묘기를 보여 준다.

군사정권 아래서 투옥된 지성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김남주 시인을 기억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 저항 시인이란 정도일 것이다. 오랜 동안의 감방생활과 구타와 고문. 석방이 되지 얼마 안되어 그 후유증으로 병사, 망월동 묘지에 안장된다. 생전에 발표된 주옥같은 시들은 시를 좋아하는 일부 독자들만 기억할 것이다. 드라마에 정신을 빼앗긴 시청자들이 이 시인과 작품을 기억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한지 알지만 한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 고즈넉하여 잔잔한 미풍을 연상시키는 순간에 혁명가란 시 구절이 떠오르다니. 가슴을 은은하게 적셔주는 마지막 대사가 김남주의 시 혁명가의 일절이기 때문이다. 완력이나 폭력만이 혁명과 연관된 것으로 여기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치열한 삶이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을 적셔준다. 삶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 것, 조용한 아리아로 사람의 가슴을 적셔주는 것도 일종의 혁명이 아닐까. 걱정적인 사랑의 장면이란 한 씬도 없었지만 새로운 모랄의 사랑을 형상화 시켜주는 것도 그런 것이다.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건 눈물로만 부르는 슬픈 노래가 아닐까.

예진역으로 나오는 텔런트의 스캔들이 이 드라마가 남겨준 영상에 대해 상처를 입힌 건 사실이지만 그 감동은, 마지막 대사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 곡성의 전설

## 원효대사와 도림사(道林寺)

동악산(動樂山)은 신라의 명승 원효대사가 이 산에 길상암(吉祥庵)과 도림사(道林寺)를 창건 할 때 이 산이 상서롭게 움직이며 노래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 한다. 원효는 49세 전후에 배넘이재 아래 길상암에서 생활했는데 5리쯤 되는 성출봉(聖出峰)에서 부처님과 16나한(羅漢)이 굽어보는 꿈을 꾸었다. 꿈에 깨어나 산위에 오르니 40미터 가량의 돌(羅漢像)이 솟아 올라 번갈아 가면서 암자에 열일곱차례 안치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짚어지고 돌아서려니까 또 하나가 올라 이를 마저 가져가려고 해서 뽑아 올리니 머리만 떨어지고 말았다. 이 몸통없는 나한상은 길상암 앞에 탑을 세워 모시고 나머지 나한상 17개는 길상암 내에 모셨다고 사찰 사료에 전해온다.



△성출봉에서 솟아올랐다는 도림사의 16나한상

## 신승겸(申崇謙)과 신유봉(申遊峰)

목사동면 구룡리는 뒷산인 비래봉(飛來峰)의 지맥이 용처럼 아홉가닥이나 뿔어내려 붙은 이름으로 이 정기를 받아 태어난 신승겸장군이 이곳에서 5리쯤 떨어진 유봉리 산을 날아다니면서 무예를 익혔다 하여 "신유봉"이라 했다 한다. 마을앞 용바위에서 나온 용마(龍馬)를 타고 무예를 닦았고 말고삐를 매었다는 "계마석"이 삼태(三台)리 앞에 있다. 활을 특히 잘 쏘았는데 궁예의 막하장군이 되었다가 왕건(王建) 추대에 가담 해 견훤을 격퇴하기 위한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포위 당하자 스스로 왕건으로 분장해 대신 전사하였다. 이때 용마가 장군의 목을 물고 고향과 가까운 태안사 뒷산에 나타나 3일간 울었다고 전해진다.



>신승겸장군의 계마석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 곡성의 생활상 - 기후

### 전라도 곡성에 지진이 일어난다

(태종 13년(1413) 1월 10일)  
경상도 남해현 전라도 금주·무풍·곡성현에 지진이 있었다.  
- 원전 1집 659면

### 전라도 옥과에 지진이 일다.

(세종 6년 (1424) 5월 1일)  
전라도 나주·순천·부안·영암·김제·옥과에 지진이 일었다.  
- 원전 2집 595면

### 옥과 등 각지에 지진이 일다

(세종 10년(1428) 7월 14일)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원·진원·옥과·담양·전주·화순·고부·부안·태인·용담·장수·김제와 충청도의 옥천·충주 등지에 지진이 일었다.  
- 원전 3집 138면

### 전라도 지방에 큰 바람이 불어 벼와 나무가 쓰러지다

(세종 11년 (1429) 7월 16일)  
전라도의 담양·남원·김제·영암·해진·영광·부안·무장·무암·정읍·구례·곡성·함열 등의 고을에 큰 바람이 불어 벼가 다 쓰러지고, 큰 나무가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힌 것이 많았다.  
- 원전 3집 189면

### 전라도 남원과 옥과 등 고을에 나흘동안 서리가 내렸다

(세종 12년(1430) 4월 23일)  
전라도 남원과 옥과 등 고을에 나흘 동안 서리가 내렸다.  
- 원전 3집 233집

### 전라도 남원·곡성·옥과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세종 12년(1430) 4월 4일)  
전라도 남원·곡성·순창·임실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남원이 더욱 심하여 우박이 다섯 치 두께나 내려서 보리 및 목화·기장·조 등에 피해가 심히 많았다.  
- 원전 3집 235면

### 남원·옥과 등 고을에 서리가 내려, 벼를 다시 파종하다

(세종 13년(1431) 4월 22일)  
남원·옥과 등 고을에 서리가 내려, 벼가 간혹 말라 죽었으므로 다시 파종한 것이 있었다.  
- 원전 3집 312면

### 남원·옥과 등 고을에 서리가 내리다

(세종 13년(1431) 4월 25일)  
남원·옥과·옥천·문의·회덕 등 고을에 서리가 내렸다.  
- 원전 3집 313면

### 전라도 일대에 지진이 일다

(세종17년(1435) 4월 5일)  
전라도 금구·창평·태인·흥덕·임실·담양·동복·고부·순창·옥과·곡성·김제·부안·옥구·무장·정읍·운봉·고창·남원·임피·함열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는데, 그 소리가 우리와 같았다.  
- 원전 3집 622면

### 전라도 옥과 등 세 고을에서 지진이 일었다.

(세종 18년(1436) 11월 3일)  
전라도의 옥과 등 세 고을에서 지진이 일었다.  
- 원전 4집 39면

### 전라도 곡성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니 임금이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다

(단종 2년(1454) 12월 28일)  
경상도 초계·산산·흥해와 전라도 전주·익산·용안·흥덕·무장·고창·영광·함평·무안·나주·영암·해남·진도·강진·장흥·보성·홍양·낙안·순천·광양·구례·운봉·남원·임실·곡성·장수·순창·금구·함열 및 제주의 대정·정의에 지진이 일어나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으며,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므로,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  
- 원전 6집 715면

### 전라도 옥과 등지에 서리가 내렸다

(단종 3년(1455) 3월 24일)  
전라도 운봉·옥과·홍양·장수·순창·광주·장성·여산·진안·진산·태인·임실에 서리가 내렸다.  
- 원전 7집 36면

### 충청도와 전라도에 지진이 나니, 임금이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를 지내다

(세조 5년(1459) 8월 4일)  
충청도의 보은·회인·괴산·청안·청주·연기·문의·옥천·청산·은진·석성과 전라도의 남원·임실·순창·담양·옥과에 지진이 나니, 임금이 향과 축문을 내려 해괴제를 지내게 하였다.  
- 원전 7집 340면

# 우리마을의 地名由來 - 옥과면



## 옥과리

옥과현 당시 현의 소재지 마을이었으며 하동, 하당리, 갈산리, 옥전리 등이 합하여 1914년에 옥과리라 개칭하였다고 함.

## 옥전리

옥과현 당시 현의 소재지였으며 하동, 하당리, 갈산리 등이 합하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옥과2리로 분리 되었다. 고려말에 감옥이 있어 감옥 앞의 마을이라 옥전리(獄前)라 하다가 후에 옥전(玉田)으로 변경하였다.

## 죽림리

마을회관 부근으로 금강이 있어 지어졌다는 대금(大金)리와 마을 뒤 양지 바른 곳에 대나무가 무성해 붙여졌다는 죽림리를 1914년 합하여 죽림리라 칭하였다.

## 지동리

마을 형성 당시 지세가 도와 덕이 출중 하게 될 모양이라 도덕촌으로 불리다가 임진왜란 당시 설산지하 10리내 동자가 들어 있는 마을의 피난지라 하여 이 마을을 지동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리문리

현 리문리는 옥과면이 현감 재직시 화순, 담양, 순창 등 3개 현감의 왕래가 많아 관문(官門)이라는 뜻에서 리문리라는 지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용두리

마을뒤 산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가다가 끊기면서 선호천(仙湖川)이 흐르고 있어 용이 꿈틀거리며 물로 들어간 형상이라 하여 용두촌이라 하였다.

## 설옥리

마을뒤 북쪽 바위산의 모습이 멀리서 보면 눈(雪)처럼 하얗게 보이므로 그 산을 설산이라 불렀고 설산아래 위치했기에 설산리라 칭하다가 1914년 옥과에 속하면서 설옥이라 개칭하였으며 창평현에 속하였을 때에는 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하여 목동이라 칭함.

## 지방리

괘일산 남방 계곡의 협소한 골짜기에 마을이 조성되어 지방이라고 명명하였고, 개울 건너마을은 덕인(德人)이 배출될 곳이라 하여 덕곡리라 칭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설옥2구로 개칭되었음.

## 울사리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 형태가 밤알맹이(栗)와 같이 생겼고 마을 뒤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밤정굴이라 하였으며 절이 있어 울사리라 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금단리

앞에는 황산이 있고 뒤에는 설산이 있어 양산의 정기를 받고 앞냇물은 황금이 있어 요산요수라 하여 터를 잡았으며, 큰 비만 오면 냇물이 범람하여 가옥과 전답이 침수되어 수침동으로 명명되어 火面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옥과면에 편입 현재에 이룸.

## 황산리

마을 뒤산이 봉황형세라 하여 황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1982년 2월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검면에 속해 있다가 옥과면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룸.





△ 남원진관도 옥과현 지도

### 보정리

두루미와 황새가 샘을 발견하였고 그 샘의 물이 맛과 빛이 아주 좋아 보정(寶井)이라 하였으며 1982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검면에 속해 있다가 옥과면으로 편입됨.

### 무창리

조선조때 대부역(大富驛)이 있어 무기와 병사를 많이 주둔시켰으며 지형이 활 모양이라 활은 무(武)를 상징한다 하여 무(武)를 장려 창성(昌盛)시킨다는 뜻에서 무창리(武昌里)라 하였다.

### 금의리

300여년전 이 마을에 애당이라는 호로 부리우는 사람이 과거 급제하여 금의환향하게 됨으로 금의동이라 하였으며 이분의 호인 艾堂을 따서 쑥당이라고도 하였다.

### 신흥리

무창마을 인근에 새로 마을터를 잡으면서 새로 일어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新興)이라 칭 하였다.

### 주산리

동남북 방향은 평야이며 서쪽에는 남북으로 뻗어있는 산이 있으며, 마을 앞에는 큰 냇물이 흘러 풍수지리적으로 배의 형국이라 하여 주산리라 하였다 함.

### 소룡리

옛날 이 지역이 바다였을 때 용이 살던 곳이라는 전설에 의해 용의 집(巢)이라 하였으며 지형이 용이 머무는 곳이라 하여 소룡리라 칭하게 되었음.

### 수리

옥과현 수면(水面)의 지역으로 물이 많으므로 물한실 또는 수대곡이라 하였으며 1908년 창평군 수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수리라 칭하여 옥과면에 편입 됨.

### 신수리

마을 뒷산 지형이 사봉(砂峰)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당시 새터라 칭하다가 일제시대 초대 면장인 김재순씨가 마을 앞에 많은 물이 흐르는 새로운 마을이라 하여 新水里라 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일명 조리터라고도 명하기도 한다.

### 배감리

임진왜란때 한 장사(將師)가 이곳에 와 보니 마을 부녀자들이 임진왜란이 터진 것도 모르고 베를 짜고 있었고 특히 감나무가 많아서 배감이라 부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합강리

마을뒤로 삼진강이 흐르고 앞으로는 옥과천이 흘러 강과 천이 합친다고 해서 합강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사방이 산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도리산이라고도 명 하고 있다.

### 광암리

마을의 주변 산 전역에 바위와 돌이 많아서 마을 형성 당시부터 광암으로 불리어져 현재에 이름.

# 곡성군 연혁

곡성은 총면적이 546.96km<sup>2</sup>로 농지 99.8km<sup>2</sup>, 임야 398.27km<sup>2</sup>, 기타 48.89km<sup>2</sup>인 산지가 약 70%를 차지한 전형적인 산간 지역으로 전남의 최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의 섬진강, 보성강이 자랑이다. 특히 보성강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압록 유원지에는 넓은 모래사장과 전라선 철교와 반월교가 나란히 강을 가로지르고 상수원 1급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은어, 참계, 쏘가리 등이 잡혀 전국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곡성군은 54km에 이르는 맑고 깨끗한 섬진강과 보성강, 3만여 평에 달하는 금빛 모래사장의 압록유원지, 태안사, 도림사등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5개면을 관통하고 있는 호남 고속도로가 3개 IC를 형성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예로부터 수많은 의인과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등을 배출한 곡성은 자신의 고장을 의철의 고장이라 부르며, 수려한 자연 경관과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1. 선사시대의 곡성

옥과면 주산리와 입면 송전리, 제월리 등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입면 송전리에서 발견된 박편석핵은 한반도의 세석기 제작기술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유물로 보아 곡성 지역에서는 이미 후기구석기 이후부터 인문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입면 서봉리, 매월리, 제월리, 오산면 연화리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 보고 되었고 청동기 시대 유물인 고인들은 목사동면에서 118기, 삼기면 57기, 오산면 37기, 석곡면 26기, 죽곡면 22기 등 모두 320여기가 조사되었다.

## 2. 백제시대의 곡성

마한의 잔여세력과과의 싸움에서 백제가 전남 지방을 아우르기 시작한 것은 근초고왕 24년(369년경)인데 그 후 곡성 지역에는 죽곡·목사동·석곡 일대의 옥내군과 옥과·오산 일대의 과지현이 역사 기록(김부식의 삼국사기 지리지 백제조)에 등장한다. 또, 옥과면 봉산리, 입면 만수리

지역에서는 6세기 이후의 백제시대의 횡혈식석실본이 발견 조사되었다.

백제시대에는 행정조직이 방-군-현제가 시행되었는데 옥내군은 둔지현 등 세 현을 거느리는, 과지현은 복출군(현재 보성군) 아래에 있는 현으로 볼 수 있다. 백제시대 옥내군은 지금의 목사동면과 석곡면 일대로, 과지현은 옥과면과 오산면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 3. 통일신라시대의 곡성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인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는 대대적으로 지방통치조직과 군현 개명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곡성군은 본래 백제의 옥내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고려시대)도 그대로이다. (곡성군이) 거느리고 있는 현이 셋이다. 부유현은 본래 백제의 둔지현으로 경덕왕이 바꿔 지금과 같다.(삼국사기 지리지 3 곡성군) 이러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백제시대 때와 군현의 분포 상에는 변화가 없이 명칭만이 바뀌는데 지금의 곡성지역인

옛 옥내군은 곡성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예하에 지금 순천시 주암·쌍암 일대 지역인 부유현과 지금 구례군 지역인 구차례현, 그리고 화순군 동북면 지역인 동북현을 영속하며, 옥과 지역인 과지현은 이름이 옥과로 바뀌고 추자해군(현재 담양군)의 영현으로 들어간다.

#### 4. 고려시대의 곡성

태조 23년(서기 940년)에는 일부 군현의 영속관계가 변경되고, 또 일부 군현의 이름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곡성은 예하에 부유, 구례, 동북현 등을 거느리던 영군의 지위에서 떨어져 승평군(현 순천시)의 속현으로 편제되고, 추성군의 속현이었던 옥과는 보성군의 속현으로 편제되게 되었다. 현종 9년(서기 1018년)에 곡성은 승평군의 속군에서 다시 나주목의 속군으로 이속되었고 옥과는 보성군의 속현으로 계속 존재케 된다. 이 군현의 편제를 보면 종래까지의 군현의 위격 등에 큰 변동이 일어나 그 정치적 지위와 세력범위가 축소된 지역과 반대로 확대된 지역이 생겼는데 곡성은 고려 초기의 군현체제 개편기에 그 지위가 강등되어 나주목의 속현으로 편제되는 읍격의 강등을 보인 군현이 된 셈이다.

고려 후기 명종 2년(서기 1172년)에는 감무가 파견되어 곡성과 옥과는 나주와 보성의 임내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현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한편 고려 말 창왕대에 왜구로 말미암아 죽곡면 당동리 지역에 위치하였던 곡성의 읍치가 동악산 아래 현재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다. 『고려사』에 보면 우왕때 곡성, 남원, 순천 등이 함락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왜구로 인한 읍치의 이설은 이 무렵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5. 조선시대의 곡성

조선 태종 13년(서기 1413년)에 종래의 감무현에서 새로이 현감 현으로 바뀌고 정유재란(서기 1597년)때 읍이 탕산 됴에 따라 선조 30년(서기 1597년)에 남원도호부에 합속되었다가 10년후인 광해군 원년(1609년)에 이르러 다시 분리 독립하여 복설되었다.

곡성군의 지명은 1912년에 편찬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구의 증가로 리(里)의

수가 증가되었을 뿐 행정조직은 변화없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 근대 이후의 곡성

1895년 5월에 8도의 체제를 23부로 개편하고 부 밑에는 일률적으로 군(336군)을 두어 종래의 부목군현제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때 전라도는 전주부·나주부·남원부·제주부의 4부로 나뉘게 되었고, 곡성과 옥과는 남원부 산하 15개 군중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14개월만인 1896년 8월에 부제를 폐지하고 다시 13도제로 변경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13도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분리되게 되었고 곡성군과 옥과군은 전라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1908년에는 옥과군을 폐지하여 창평군에 병합시키면서 현내면을 옥산면으로, 입석면을 입면으로, 화석면을 화면으로, 검방면을 검면으로, 지좌곡면을 지면으로, 수대곡면을 수면으로 각기 개칭하였다.(1908. 10. 15. 칙령 72호)

이후 1914년 대대적인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창평군에 병합되었던 옛 옥과 지역의 옥산면, 입면, 검면, 화면, 지면들이 곡성군으로 이관되었고 구례군 고달면 일원, 순천군 주암면의 구촌, 비룡, 고산리와 전북 남원군 금암면의 석전리, 소견곡면의 방산, 신기리 지역 일부가 편입되었다. 이와 함께 면간의 통폐합 및 개명 작업들을 이루어 옛 곡성의 도상면과 아산면을 합쳐 곡성면으로, 그리고 지면은 검면에 통합함으로써 11면 126개리를 관할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1915년에는 다시 남원과의 사이에 순자강 양안의 마을들의 이속 조치를 행하여 남원군 금지면과 대강 지역에서 순자강의 우안지역은 곡성으로 편입시키고 입면 하촌의 순자강 북쪽지역은 남원에 이관시키었다.

그후 1946년에는 화면을 오산면으로 개칭하였고 1973년 7월 1일자로 오곡면의 묘천리를 곡성군 관할로 옮기었다. 다시 1979년 곡성면이 읍으로 승격됨으로써 1읍 10면의 체제를 이루게 되었고 1986년 또 다시 행정구역의 조정을 이루어 석곡면의 운용리가 순천시 주암면으로, 옥과면의 송전리가 입면으로, 검면의 황산리 지역이 옥과면으로 편입됨에 따라 1읍 10면 125개 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곡성군 문화재

문화유산 - 곡성군 문화재

## 태안사

은빛 모래와 하늘이 비치는 맑은 물의 섬진강을 끼고 곡성읍에서 국도 17호선을 따라 16km쯤 가다보면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하는 압록유원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보성강을 다시 끼고 국도 18호선을 따라 12km를 가면 죽곡면 원달리에 위치한 태안사에 다다를 수 있다. 동리산 자락에 위치한 태안사는 『동리산태안사사적(桐裏山泰安寺事蹟)』에 의하면 경덕왕 원년(742) 2월에 이름 모를 신승 세 분이 개창하고 그로부터 1백여년이 지난 뒤 해철선사가 당나라 서당지장에게 법을 전수받고 문성왕 원년(839)에 귀국한 후 이곳에 신라시대 선문의 동리산파를 이룬 것은 문성왕 9년(847)이다. 고려시대에는 광자대사(864~945년)가 크게 중창하였는데 이때의 가람 규모를 보면 건물 총 40여 동에 110칸이었으며 법당에는 높이 1.4m되는 약사여래철불좌상이 봉안되었던 것 같다.

고종 10년(1223)에는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왕지를 받들어 중건하였으며, 조선시대는 초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다가 숙종연간, 즉 숙종 10년(1684)에 주지 각현이 창고를 새로 지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풍수 지리설의 원조인 도선국사도 이곳 태

안사에서 20세때부터 23세까지 해철에게 가르침을 받고 크게 깨쳤다. 특히 조선 초기는 태종의 둘째아들 효령대군(1396~1486)이 이곳에 머물렀던 인연이 있기도 하다.

태안사는 한국전쟁 때 많은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대부분 그 후에 복원된 것이다. 경내는 해철선사의 부도인 적인선사조륜청정탑과 바라 그리고 광자대사탑과 비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외 일주문과 3층석탑이 지방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 적인선사조륜청정탑(태안사)

태안사 대웅전 뒤쪽 배알문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 흙담장을 쌓고 그 안에 부도와 탑비를 함께 모신 개산조사인 해철스님의 부도탑이다. 이 부도는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이라는 신라(新羅) 석조부도의 전형을 잘 보여 기단부(基壇部)부터 옥개석(屋蓋石)과 상륜부(相輪部)에 이르기까지 팔각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도의 건립년대는 신라 경문왕(景文王) 원년(元年)(861)으로 추정된다.

## 광자대사탑(태안사)

태안사 일주문을 막 지나 오른편 부도밭에 자리하며 고승 광자대사의 부



태안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84. 2. 29)  
죽곡면 원달리 20

적인선사조륜청정탑(태안사)  
보물 제273호(63. 1. 21)  
죽곡면 원달리 20

광자대사탑(태안사)  
보물 제274호(63. 1. 21)  
죽곡면 원달리 20

광자대사탑(태안사)  
보물 제275호(63. 1. 21)  
죽곡면 원달리 20

도당이다. 높이는 약 3m에 달하고 지석대부터 상륜부의 보개까지 8각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기단부 위에 탑신을 차례로 놓은 전형적인 8각원당형으로 보물 제274호로 지정되어 있다.

### 광자대사비(태안사)

광자대사탑 옆에 놓은 탑비는 (해동금석원)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 5.2척, 너비 3척으로 나타나 있는데 언제인가 비산이 깨져 오른쪽 상부와 하부가 멸실된 비편이 귀부와 이수사이에 놓여져 있으나 판독이 가능하다. 비의 두께는 22cm, 자경은 3cm 정도로서 현재 보물 제275호로 지정되어 있다.

### 태안사 대바라

태안사 경내에 보관중인 바라는 승가에서 범패같은 행사에서 사용되는 무구로서 악사가 무자, 여기, 집박악사, 악공 등을 인도할 때나 그 밖에 취타와 무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라가운데 절에서 쓰이는 것을 동발이라고 하는데, 태안사 바라는 지름이 92cm인 국내 최대의 거품으로서 제작 기법 또한 우수하며, 사천품이나 손상이 거의 없다. 다행히 작품에 명기가 있어 제작 연대 등을 알 수 있다. 이 바라는 효령대군이 세종과 왕비, 왕세자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발원 제작한

것으로, 크기로 보아 사람이 손에 든 채 매달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2매가 1쌍이다.

### 태안사동종

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한국 종의 독창적인 조형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이 종은 조선전기 동종양식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전통양식의 계승과 새로운 양식의 접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종은 사찰의 불사차원에서 주조된 범종으로 명문에 의하면 “天順元年(조선 세조 3년, 1457)”에 처음 주성했으나 파손되어 “萬曆9年(조선 선조 14년, 1581)”에 다시 주조한 것이다. 종뉴부(鐘紐部)는 한 마리의 용과 음통으로 조형되었고 종 몸체는 입상대, 상대, 하대, 유곽, 당자로 구성되었다.

종 몸체 3곳에 양각된 명문이 있어 종의 조성경위를 알려주고 있으며 임란이전 제작된 중형종으로 주조기술도 좋은 편이어서 미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태안사삼층석탑

석탑은 몇 년전만해도 지금의 부도밭인 광자대사 부도 바로 앞에 있었으며 당시의 기단부면석 1매와 1층 옥개석, 2~3층의 탑신이 유실된 상

태이다. 지금은 연못을 만들면서 연못 중앙의 섬으로 옮겨 유실된 탑재들을 새로 만들어서 완전히 복원된 것이다. 탑의 구조는 기단이 2중이고 석탑은 3층으로서 상륜을 갖추었으나 원래는 2중기단을 연못으로 옮기면서 3단의 하대석을 깔고 기단부로 삼았기 때문에 탑이 전체적으로 길다랗게 보인다. 탑신부는 옛 탑부재와 새로운 탑재가 한데 섞여 있으며 옥개석 층급받침은 4단이고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괴임을 각지게 두었다. 높이 4.17cm인 이 석탑은 비록 옛 부재에다 일부 탑재를 새로 만들어 복원한 것이기는 하나 탑의 조형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통일신라시대의 균형감을 갖춘 고려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 태안사능파각

태안사의 금강문으로 누각을 겸한 일종의 다리건물이다.

계곡의 물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능파(凌波)’라 이름하였다. 이 다리를 건너면 세속의 번뇌를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진입함을 상징한다.

통일신라 문성왕 12년(850)에 혜철선사가 처음 지었고, 고려 태조 24년(941) 광자대사가 수리하였다고 한다.



태안사대바라  
보물 제956호(63, 1, 21)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삼층석탑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0호(88, 12, 21)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동종  
보물 제1349호(02, 10, 29)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능파각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81, 10, 20)  
죽곡면 원달리 20

그 뒤 파손되었던 것을 조선 영조 43년(1767)에 다시 지었다.

다리를 건너는 쪽에서 보았을 때 앞면 1칸·옆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간결한 맞배지붕이다. 계곡의 양쪽에 바위를 이용하여 돌축대를 쌓고 그 위에 두 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세웠다.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은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배치하는 주심포 양식이며,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민흘림 기둥을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동물상을 조각한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다리와 문·누각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지은 특이한 건물이다.

### 태안사일주문

일주문은 속세와 불계의 경계 역할을 하는 의식적인 상징물로서, 조선 숙종 9년(1683) 각헌선사가 다시 지은 후, 1917년과 1980년에 보수하였다.

태안사 일주문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두 개의 굽은 기둥 위에 앞면 1칸의 규모로 세웠으며,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단순한 맞배지붕이다. 기둥에는 양쪽 모두 앞뒤로 보조 기둥을 세웠다.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 있는 다포식이다. 앞·뒷면의 기

둥 사이에는 3구씩, 옆면에는 1구씩 공포를 배치하여 전후좌우가 모로 짝찬 느낌이 들며, 매우 화려하다.

일주문 내부의 천장 아래에는 용의 머리를 조각하여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앞면에는 '동리산태안사(桐裏山泰安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 도림사

신라 무열왕 7년(660)에 원효대사가 사불산 화엄사로 부터 이주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며 통일신라 헌강왕 2년(876) 도선국사가 고쳐 세웠는데 이때 도인들이 숲같이 모여들어 절 이름을 도림사(道林寺)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절 안에는 작은 규모의 법당인 보광전을 비롯하여 응진당, 지장전, 약사전, 칠성각, 요사채 등이 있다. 보광전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에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인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으로 꾸몄다. 이 절에는 조선 숙종 9년(1683)에 제작된 도림사 괘불탱(보물 제1341호)을 보관하고 있다.

### 도림사계곡

동악산 남쪽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계곡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반

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잡목숲과 넓은 반석위로 흐르는 아홉구비의 계곡물이 중간중간에 여러 소를 이루고 있다. 이계곡 정상 부근에는 신선이 쉬어간다고 하는 신선바위가 있다.

### 도림사괘불탱

중앙에 석가불과 좌우에 보살상을 배치한 석가삼존도 형식의 괘불이다.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고그림을 말한다. 도림사에 있는 이 괘불의 크기는 길이 776cm, 폭 719cm로, 중앙의 본존불은 왼손을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을 내려서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의 손 모양을 하고 있다. 본존불 좌우에 연꽃가지를 들고 서 있는 두 보살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왼쪽의 문수보살은 보관에 조그만 부처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 보살과 다르다.

조선 숙종 9년(1683)에 계오, 삼안, 신균 등의 세 화원 비구가 그린 이 그림은 그림에 대한 내력을 적어 놓은 화기가 있어서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자료가 귀한 석가삼존불형식으로 그 색채구성과 문양표현, 인물의 형태 등에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17세기 후



태안사일주문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81. 10. 20)  
곡성읍 월봉리 20



도림사계곡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1호(87. 1. 15)  
곡성읍 월봉리 산 27



도림사괘불탱  
보물 제1341호(84. 2. 29)  
곡성읍 월봉리 327

반기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하다.

### 관음사

백제 분서왕 3년에 성덕이라는 처녀가 세운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절 이름은 성덕처녀가 낙안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와 절을 짓고 이름을 '관음사'라 부른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고려 공민왕 23년(1374) 5번째로 넓혀 지었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어 선조 37년(1604) 5년 동안 모든 건물을 복원하였다. 근세에 와서는 1912년 영담화상이 전가람을 고쳐 세웠으나 한국전쟁으로 모두 불타버렸다. 이 때 국보로 지정되어 있던 원통전과 금동관음보살이 소실되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존 건물 7채중 3채는 타지 않고 남은 건물이고 4채는 1954년 박창훈 스님이 이 절 1km쯤 위에 있던 대은암(大隱庵)을 이축한 것이다.

관음사찰은 고대소설 심청전의 원류로 추정되는 원흥장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 가곡리5층석탑

가곡리 매봉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절터에 있는 석탑으로, 2단의 기단 위

에 5층의 탑신(塔身)을 얹은 모습이다. 가곡리 오층석탑의 맨 아래 바닥돌은 시멘트로 만든 기단에 묻혀 있어 원래 모습을 알 수 없다. 탑의 아래기단에는 기둥 모양이 없으나 윗기단에는 모서리기둥이 새겨져 있다. 5층의 지붕돌은 알맞은 비례로 줄어들었는데, 1층 몸돌은 4매의 돌, 2층 이상의 몸돌은 1매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각 몸돌에는 모서리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2층부터 5층까지의 몸돌 남쪽면에는 네모난 홈을 파서 감실의 효과를 내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지붕돌 받침은 3단이고, 5층 지붕돌 받침은 2단으로 되어 있다. 지붕돌 윗면의 경사는 완만하나 양끝의 귀마루가 매우 두텁게 표현되어 백제계 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돌의 처마선은 수평을 이루다가 끝에 이르러 위로 살짝 들어 올려졌고, 지붕돌 모서리에는 풍경을 달았음직한 구멍이 있다. 특히, 매층 지붕돌 위에 또다른 돌로 몸돌받침을 만들어 몸돌을 괴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 석탑은 맨 위부분인 상륜부를 제외한 각부의 부재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고려시대에 건립된 일반형 석탑의 양식은 물론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건립되던 백

제계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석탑은 담양읍 오층석탑(보물 제506호)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탑신과 지붕돌에 나타난 표현양식과 더불어 몸돌받침이 있는 점은 고려시대 석탑의 대표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조각기법이 매우 세련되며 안정감을 보이는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백제 옛 터에서 나타나는 백제계 석탑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다

### 곡성향교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곡성향교는 조선 선조 3년(1570)에 지었다고 전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중종(재위1506~1544) 이전에 세운 것으로도 보인다. 건물 배치는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서재가 있고,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의 형태로 되어 있다. 대성전은 앞면 5칸·옆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새 부리 모양으로 짜맞춘 익공 양식이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



관음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84, 2, 29)  
오산면 신세리 27



가곡리5층석탑  
보물 제1322호(01, 9, 21)  
오산면 가곡리 신 2



곡성향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84, 2, 29)  
곡성읍 교촌리 27

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명륜당은 앞면 3칸·옆면 3칸 규모에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앞면 3칸·옆면 2칸 크기를 갖추고 있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강당이고, 동재·서재는 기숙사이다. 이외의 건물로는 내심문·전사청·교직사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 옥과향교

옥과 향교의 창건연대(創建年代)는 알 수 없으나 원래는 황산(凰山)에 있었다가 울정(栗亭)으로 옮겼고, 조선(朝鮮) 영조(英祖) 31년(1755) 설산(雪山) 아래인 현 위치로 옮겼으며 정조(正祖) 20년(1796) 중수(重修)하였다고 한다. 그후 고종(高宗) 광무(光武) 2년(1898) 재차(再次) 중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사지에 위치하여 학당부(學堂部)인 명륜당(明倫堂)을 전면에 두고 문묘부(文廟部)인 대성전(大成殿)을 후면 높은 곳에 두어 일반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配置形式)을 따르고 있다. 문묘 내에는 5성(五聖)과 중국4현(中國四賢) 그

리고 우리나라 18현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고 춘추(春秋)로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있다.

### 유월파장군 정려각

유월파 정열각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왜적과 싸우다 죽은 유팽로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인조 3년(1625)에 세운 건물이다. 월파'라는 이름은 유팽로 장군의 호인 월파에서 비롯되었다. 유팽로 장군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과거에 급제하고도 부모 봉양을 위해 벼슬을 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호남지역으로 침입하고자 금산에 집결한 왜적을 공격하다가 고경명·안영 장군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유월파 정열각이 있는 옥과면 북쪽 끝에는 장군의 말 무덤이 있다. 유팽로 장군이 금산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그의 말이 장군의 머리를 물고 먼 길을 달려 그의 생각까지 갖고 부인이 장군의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말은 마구간에 들어가 9일이나 여물을 먹지 않은 채로 계속 울다 죽었다고 한다

### 석곡리석불입상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이 석불입상은 무륜 이화가 매몰되었지

만 거대한 석불상의 예로 주목을 끌고 있다. 머리광배와 불신을 하나의 돌로 만들었으며, 평평한 돌에 돈을 새김으로 조각하였다.

마멸이 심해 세부 수법은 잘 알 수 없으나 민머리 위에 있는 팽이 같은 머리묶음, 목에 있는 3줄의 삼도(三道) 등은 비교적 뚜렷하다. 체구는 건장하며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다. 굵은 옷주름이 양쪽 팔로 흘러내렸는데 역시 세부표현은 뚜렷하지 않다. 원형의 머리광배에는 아무런 무늬도 새겨지지 않았다.

마멸이 심해서 양식적인 특징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표현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거대한 지방석불상의 예로 생각된다.

### 도동묘

오곡면 오지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동묘는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와 회한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1677년 오곡면 승법리에 묘각을 건립하여 안향의 영정 진상을 이안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이 묘각을 도동사라 칭하였다.

이후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으나 승법리에서 오지리로 이안하였으며 1868년(고종 5년) 훼손되었다가 1902년 도내의 유림들과 협의하여



옥과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9호(85. 2. 25)  
옥과면 옥과리 14-1



유월파장군정려각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84. 2. 29)  
옥과면 함강리 48



석곡리석불입상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호(84. 2. 29)  
석곡면 석곡리 2822



주자를 부벽으로 하고 안향을 동벽으로 하여 복설하였다. 사당엔 주자와 안향의 추상화(120×180cm)와 용의 형상을 나타낸 항토 술잔 등이 있으며 춘추로 3월 15일과 9월 15일 두차례 유림들이 제사를 모시고 있다.

### 덕산사

고려말 여진족을 토벌하고 9성을 축조한 윤관 장군과 부원사였던 오연총(吳延寵) 장군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함경도 경성에 있었는데 그 후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폐쇄되었다가 1935년 이곳 덕산으로 옮겨졌다. 음력 3월 3일 제사를 모시고 있고, 건물은 삼문이 있으며 덕산사는 정문 3칸 주심포계 맞배 와가로 측면 1칸은 퇴칸으로 되어 있다.

### 수성당

조선 고종 12년(1875)에 지은 건물로, 처음에는 서당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앞면 5칸·옆면 1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바닥은 온돌과 우물마루를 방과 대청에 각각 시설하였다. 건물 앞 정원에는 연못과 소나무·은행나무 따위의 나무들이 많이 있다.

### 영류재

영류재는 1917년 2월에 함안조씨들에 의해 세워진 문중 제각으로 현재까지 조씨문중에 의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곳에서 일반 문중의 제각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대·소일들을 의논하거나 제사 때에 집합·봉사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으며 마을 노인들의 모임 장소로도 사용된다. 건물의 배치는 마을의 천을 따라 올라가면 천변 마을 가운데에 남남동향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다소 넓은 대지 내에 각종 나무를 심은 정원이 가꾸어져 있으며 정원내에 연못과 괴석, 식석 등이 여러 곳에 널려 있다. 제각은 마당보다 높게 2단의 높은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정면 4칸, 측면 2칸에 전후퇴인 건물이다. 원형의 다듬돌 주춧돌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기둥 머리에는 주두가 있어 그 밑을 보아지가 받쳤으며 기둥 사이를 창방으로 연결하고 있다. 다시 그 위에는 장혀받침 굴도리가 서까래를 떠받치고 있다. 가구구조는 2고주 5량가구로 고주 위에 대량을 얹고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받쳤으며 그 위에 판대공을 놓고 장혀받침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안의 구성은 왼쪽부터 1칸의 방, 2칸의 대청마루, 1칸의 방 순으로 되어 있다. 방에는 배면의 함실아궁이에

서 불을 피우게 되었고 외부로는 2분합 띠살문, 대청쪽으로는 4분합 들어열개 띠살문으로 되어 있다. 대청마루는 장귀틀과 동귀틀로 빈틈없이 잘 짜여진 우물마루를 깔았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겹처마이고 활주와 기둥에는 각종 주련이 걸려 있다. 영류재는 목재의 다듬은 수법과 결구기법이 우수하고 전형적인 제실건축 강당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와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옥과성황당목조신상

옥과 성황당 안에 보존되어 있는 남녀 한 쌍의 목상(木像)이다. 민간신앙에서 신으로 여기던 대상물로, 남자상은 서 있고, 여자상은 앉아 있는 모습인데, 높이가 각각 84cm, 68cm이다.

남자상은 무당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발등까지 내려오는 사제복 형태의 옷을 입고 허리끈을 매었는데, 끝이 길게 늘어져 있다. 둥근 얼굴에 크고 굵은 눈썹이 표현되었고 눈이 돌출되었다. 여자상은 머리에 고깔을 쓰고, 양 손가락 끝을 붙여 아래로 향하게 하였는데, 무언가를 들고 기원하는 모습이다. 얼굴 표현은 남자상에 비해 정교하며 자세도 다소곳하다.

남자상은 고려 명종 때의 학자였던



도동묘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호(84. 2. 29)  
오곡면 오지리 466



덕산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0호(84. 2. 29)  
오곡면 덕산리 173



수성당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9호(86. 9. 29)  
오곡면 오지리 1000

조통 장군으로 전한다. 여자상은 장군의 처라는 설도 있고, 장군을 사모하다 한을 품고 죽은 공주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신상은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을 신격화한 것이거나 추앙받을 만한 인물을 신격화한 것으로,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 총열사

입면 삼오리에 위치하고 있는 총열사는 박연의 5대손인 박언배가 조선 인조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난 후 의병장으로 안주싸움에서 참가하여 전사하자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완주이씨 또한 뒤따라 목숨을 끊었고 이들의 충과 열을 기리기위해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 함허정

조선 중종 38년(1543) 심광형이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로 일명 호연정이라고도 한다. 증손자 심민각이 오래된 정자를 옛터 아래쪽으로 옮겨 다시 지었으며 5대손 심세익이 고쳤다. 지금 있는 건물은 1980년에 수리를 한 것이다. 입면 4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구성은 마루 1칸을 3면을 터 만들었고 2칸 반은 방으로 꾸몄다. 나머지 오른쪽 반 칸은 바닥을 한 단 높여 쪽마루를 두었다. 정자 아래로 흐르는 섬진강, 울창한 숲, 멀리 무등산이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심광정이 세운 군지촌정사(중요민속자료 제155호)가 있다. 당대 학문을 익히던 선비들의 수양지와 휴식처를 빼어난 경치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 도동묘의 회헌실기목판

고려시대 문인이자 유학자인 안향(1243~1306)의 시문집『회헌실기』를 간행하기 위한 목판으로, 영조 42년(1766) 죽계서원에서 간행한 초간본 목판 55매와 고종 22년(1845)에 간행한 중간본 목판 32매 등 총 87매이다.

안향은 원종 1년(1260)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 감찰어사, 좌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나라를 다녀오면서 주자학의 학풍을 보고, 주자 관련 서적을 배껴오고,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안향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를 일러 '동방의 주자'라고 하였다. 시호는 '문성'이며, 여러 서원에서 그를 모시고 제사 지내고 있다. 그의 영정이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목판은 판각과정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이 인쇄사 측면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현재 전남 곡성의 도동묘에 소장되어 있다.

### 곡성돌실나이(김점순)

돌실나이의 돌실은 석곡에서 유래되었으며 돌실나이는 석곡에서 나오는 삼베를 뜻한다. 신라 유리왕때부터 「적마」라는 어원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예로부터 삼베와 무명베를 우리의 옷감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돌실 마포는 옛부터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우수하여 공예품으로 가치가 높다. 지금은 섬유산업 발전으로 인해 삼베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

삼베의 제작과정을 보면 우선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후, 입을 훑은 삼단을 삼곳에 넣고 찌서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삼을 찌개는 과정을 거친후, 실을 한올 한올 길게 잇는다. 그 후 베 한 필의 길이와 삼베에 따라 몇 올이 들어갈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풀 먹이는 과정을 거친 다



영류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7호(88. 12. 21)  
죽곡면 봉정리 522



옥과성향당목조신상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2호(76. 9. 30)  
목과면 옥과리 154-4



총열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1호(74. 9. 24)  
입면 삼오리 50



함허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0호(88. 3. 16)  
입면 제월리 284

음 베를 이용해 베를 짠다.

오늘날 삼베의 폭은 30~35cm 정도로 돌살나이가 9승, 안동포가 12승이 짜지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섬세한 포가 된다. 예전에는 북포(함경도 육진), 강포(강원도), 영포(경상도), 안동포(경북 안동)가 유명하였으나 서양 문물의 유입에 따라 가내수공업으로 전락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수관이 건립되어 돌살나이에 쓰이는 다양한 도구가 전시되어 있다.

### 장도(粧刀)장 - 낙죽장도(한병문)

낙죽장도는 삼국시대 당시 백제에서 궁중에 진상품으로 올려져 옛 선조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신이나 총절도로 허리춤과 주머니, 지갑에 비장의 무기로 지니고 다녔던 칼이다.

한병문씨는 13살 무렵에 재종조 할아버지(할아버지의 사촌 동생)로부터 한문공부를 배우다 어껴내머로 눈여겨보면서 배웠다고 한다. 칼 제작에 드는 시간은 보통 10여일이며 10가지에 달하는 재료를 구하는 시간은 1년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 제작 3일전 목욕재개하고 혼자서 작업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작업 때에는 정신을 집중하고 온 몸의 기를 한데 모아 제작하기 때문에 칼이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낙죽장도는 15cm내외 길이에 7마디이상의 대나무에 인두로 지져서 깨알같은 글을 옮겨 곱게 새겨 넣는다. 낙죽장도의 무늬는 구름, 산수, 매화, 달라쥐, 왕새우, 포도넝쿨 등이며 글씨는 주로 한시를 넣는다고 한다.

### 군지촌정사

심진강이 반달꼴로 끼고 돌며 멀리 광주 무등산까지 거침없이 바라보이는, 풍수지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자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조선 후기의 건물로 군지촌정사는 사랑채의 이름이며, 안채, 대문간채와 더불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18세기 중엽에 건축되었다고 하나 안채는 19세기 초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자형으로 서쪽부터 2칸의 부엌이 위·아래에 있으며, 그 옆에 큰방이 있는데 앞·뒤에 툇마루를 깔았다. 전면에 2칸의 대청이 있고, 뒷쪽에는 도장과 작은방이 있다. 큰방과 도장 앞은 문시설 없이 개방되었고, 작은방 앞은 문을 달아 가로막았다. 건물은 높이 쌓은 대 위에 있고, 방 앞쪽에는 큰방의 굴뚝시설로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다.

안채의 마당 앞에 있는 행랑채의 동

쪽에 사랑채이면서, 동네사랑인 군지정사가 있다. 예전에는 이곳이 동네서당으로 쓰였다고 하며, 앞뒤로 담장이 없어서 접근하기 쉽게 하였다. 서쪽부터 사랑방이 위·아래로 있으며, 그 옆에 대청이 놓여 있는데 개방되었다. 방 앞·뒤로는 모두 마루가 깔려있다. 대문간채는 -자형으로 안채보다 훨씬 낮게 지었으며, 대문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2칸 방이 있고 서쪽에는 외양간과 헛간이 있다. 집 앞 언덕 위에는 18세기에 지은 것으로 전하는 정자가 하나 있다.

### 죽동농악(박대업)

호남 좌도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전남의 대표적인 마을로 죽동농악은 쇠가락과 상쇠의 부모놀음이 발달하여 섬세하고 어려운 기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가락과 동작이 빠른 편이고 단체기술이 발달되었다. 죽동농악은 마당밭이나 당산굿과 같은 마을굿에서 시작하여 인근마을에 걸궁을 하는 들당산과 날당산굿, 그리고 판굿까지 한바탕 전체를 전승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의 농악보다 화려하고 많은 보유 종목을 자랑한다. 박대업씨는 기창수씨와 강순동씨의 대를 잇는 기능보유자로 죽동 농악을 이끄는 상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동묘의 회연실기목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0호(99. 7. 5)  
오곡면 오지리 571



곡성돌살나이에(김점순)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70. 7. 22)  
석곡면 죽산리



장도(粧刀)장 - 낙죽장도(한병문)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93. 7. 5)  
목시동면 공복리



군지촌정사  
중요민속자료 제155호(84. 1. 10)  
입면 제월리 288

# 그들의 유일한 꿈 - 대한독립

## 곡성군 독립유공자 (2002. 12. 31 기준)

1. 김성언(金成言) 의병  
출생: ? 사망: ? 애족장(95)
2. 김영학(金永鶴, 金永煥) 군자금모집  
출생: 1887. 11. 23 사망: 1939. 8. 5 애족장(90)
3. 김재룡(金在龍) 학생운동, 국내항일  
출생: 1907. 2. 11 사망: 1937. 1. 3 애국장(90)
4. 노임수(盧琳壽, 盧共壽, 盧仁先) 의병  
출생: 1876. 5. 24 사망: 1911. 3. 2 독립장(77)
5. 신문선(辛文善) 국내항일  
출생: 1906. 10. 24 사망: 1937. 4. 15 애족장(90)
6. 신유선(辛有善) 국내항일  
출생: ? 사망: ? 대통령표창(93)
7. 신정백(申正栢, 申正宇, 申隰) 의병  
출생: 1877 사망: 1910. 3. 27 독립장(68)
8. 양원모(梁遠謨) 의병  
출생: 1858. 5. 22 사망: 1942. 11. 3 대통령표창(96)
9. 유건영(柳健永) 의병  
출생: 1883. 4. 12 사망: 1940. 7. 24 애국장(90)
10. 유해용(柳海瑢, 柳海良) 의병  
출생: 1884. 1. 2 사망: 1938. 9. 5 대통령표창(93)
11. 윤정구(尹正九) 의병  
출생: 1882. 3. 22 사망: 1953. 10. 24 애국장(90)
12. 장기문(張基文) 광복군  
출생: 1924. 10. 17 사망: ? 애족장(90)
13. 정재건(鄭在健) 순절  
출생: 1843. 5. 20 사망: 1910. 9. 4 애국장(91)
14. 조영선(趙泳善) 의병  
출생: 1879. 6. 25 사망: 1932. 5. 24 애족장(90)
15. 조우식(趙愚植) 의병  
출생: 1870. 12. 10 사망: 1937. 5. 7 애국장(91)
16. 류인수(柳寅秀) 의병  
출생: 1860. 3. 17 사망: 1927. 8. 26 건국포장(01)

### 김성언(金成言)

- 생년월일: ? / 사망년월일: ?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애족장(95)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양윤숙(楊允淑)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순창(淳昌)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나아가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성언은 이같은 시기에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1909년 음력 4월 8일 양윤숙 의진에 가담하여 같은 달 18일경까지 활동하였다. 양윤숙 의병장은 전북 순창 사람으로 1906년 면암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하여 참가하였고 최익현 피체 후 은신하였다. 이후 1907년 군대 해산과 함께 일어난 정미의병 때부터 의병장이 되어 부서를 정하고 격문을 발표한 뒤 일본군을 수차례 공격하는 등의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

김성언은 양윤숙의 지휘에 따라 동지 약 30여 명과 함께 총 15정, 칼 2자루, 죽창 등을 휴대하고 전북 순창의 여러 부락을 돌아다니며 반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10년 5월 11일 광주지방법판소 전주

지부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김영학(金永鶴, 金永煥)

- 생년월일: 1887. 11. 23 / 사망년월일: 1939. 8. 5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군자금모집
- 서훈: 애족장(90)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전남 곡성 장터에서 만세시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며 1923년 6월 4일 천도교(天道敎) 곡성군 종리사(宗理師)에 피선되었다.

1924년 9월 8일 독립군의 군자금모집을 목적으로 김판곤(金判坤)·한방섭(韓芳燮)과 같이 김재우(金在宇) 집에 잠입하여 그는 밖에서 망을 보고 김판곤은 집안에 들어가 김재우에게 국사(國事)를 도모하기 위하여 1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김판곤이 가지고 있던 칼을 김재우에게 드리대고 있을 때, 김재우의 두말이 도망가자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일경에 피체되었다.

1924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김재룡(金在龍)

- 생년월일: 1907. 2. 11 / 사망년월일: 1937. 1. 3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학생운동, 국내항일
- 서훈: 애국장(90)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27년 10월 광주농업학교(光州農業學校)에 재학하고 있을 때 광주(光州) 누문동(樓門洞) 김태호(金台鎬)의 집에서 김복만(金福萬)·유상걸(柳上杰) 등과 함께 성진회(醒進會)의 재건방안을 논의하고 비밀결사인 사회과학연구회(社會科學研究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어 1928년 6월 30일 송성수(宋聖秀)·김태식(金台植) 등과 같이 광주농업학교(光州農業學校) 재학 당시 이 학교에 재직 중인 악질교사 배척을 위한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무기징역처분을 받고 피체되어 1928년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받았다.

1929년 11월 12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시위를 주도하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1930년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1932년 1월 7일 전남 곡성군(谷城郡) 옥과면(玉果面)에서 정동화(鄭東華)·한명덕(韓明德)과 함께 농민단체인 옥과노동회(玉果勞動會)의 재건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회원 약 1,900여명을 규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었다.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노임수(盧琳壽, 盧共壽, 盧仁先)

- 생년월일: 1876. 5. 24 / 사망년월일: 1911. 3. 2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독립장(77)
- 공적내용

노임수는 전남 곡성(谷城) 출신으로 의병활동 중에는 인선(仁先)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유원중(柳原中)·조규하(趙奎夏) 등과 함께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하여 석곡면(石谷面)과 삼산(三山)에서 적과 교전하여 적 7명을 사살하였다.

1907년 노인선은 대체로 김동신(金東臣) 의진에 소속되어 활약하였다.

본래 김동신은 1906년 민종식(閔宗植)과 더불어 거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민종식 의진이 먼저 홍주(洪州)에 입성하여 크게 깨진 후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독자적으로 의진을 형성하여 의병장이 되었다.

김동신 의진은 주로 전북 무주군 덕유산(德裕山)과 정읍 내장산(內藏山) 그리고 구례 지리산(智異山) 등의 산악지대를 등지고 활약하고 있었다.

특히 1907년 9월 이후에는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하여 적군을 크게 교란시켰을 뿐 아니라 고광순(高光洵) 의진과 합진하기도 하였다.

그 즈음 노인선 역시 순천과 구례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연으로 김동신과 잠시 합진하여 그 지휘를 받아서 곡성군과 남원군 일대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동신이 오랜 전투생활 중에 득병하여 의병활동

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노임수는 1908년 4월(음 3월) 김동신 의진에 소속되었던 의병 중 뜻이 맞는 28명과 합세하여 새로운 의진을 형성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김동신은 6월에 신병 치료 중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의진에 소속된 의병 중 노임수를 비롯하여 유종환(俞鍾煥)·문태익(文泰翊)·최정근(崔正根)·성문길(成文吉)·차은표(車恩表)·오대근(吳大根)·국인묵(鞠仁默)·임병주(林秉柱) 등이 독자적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노임수는 처음에 총21정을 휴대하였을 뿐이었으나 곡성·구례·낙안(樂安) 등지에서 적과 교전하는 등의 활약을 통하여 왜적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

4월 16일에는 신정우(申正雨) 의진의 20명과 합진하여 곡성군 죽곡면 상계리(竹谷面相溪里)에서 육군 수비대 및 일경과 교전하였으나 크게 패하여 의병이 분산(分散)되는 피해를 입었다.

1908년 11월 24일 끝내 적에게 체포되어 1909년 1월 교수형(絞首刑)을 선고받고 형장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신문선(辛文善)

- 생년월일: 1906. 10. 24 / 사망년월일: 1937. 4. 15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국내항일
- 서훈: 애족장(90)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목격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 4월 15일 동지인 정동화(鄭東華)·한덕명(韓德明) 등과 노동회(勞動會) 결성을 논의하고 각기 곡성군 관내 3개면(面)씩 책임을 맡아 조직하기로 한 후 가산을 조판(調辦)하여 활동하다가, 비밀결사 전남노동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가 광주(光州)에서 조직됨으로 이에 흡수, 재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총비서(總秘書)에는 김호선(金好善)이 선출되었으며 그는 면(面)의 하부조직을 맡아 농민의 독립정신 고취를 위한 활동을 벌이던 중 1932년 10월 16일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193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6년 10월 출옥하였으나 고문의 여독으로 이듬해 사망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신유선(辛有善)

- 생년월일: ? / 사망년월일: ?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국내항일
- 서훈: 대통령표창(93)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20년 8월 전남 곡성군(谷城郡) 화면(火面) 봉동리(鳳洞里) 자신의 집에서 대한민국 군제특파원(軍制特派員) 호남파견단장(湖南派遣團長) 민재식(閔在植) 명의(名義)로 된 군자금 모집에 관련한 편지를 받고 독립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는 광주군(光州郡) 노석정(盧錫正)과 의논한 후 신경재(辛京載)에게 의뢰하여 군자금 30원을 노석정에게 교부하고 2, 3일 후 노석정 및 최양옥(崔養玉)에게 10원을 건네주는 등 군자금 조달에 힘썼다.

1920년 9월과 11월에는 신대선(辛大善)·심상홍(沈相洪)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원(臨時政府員)에게 군자금을 제공케 하는데 협력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공갈, 가택침입, 방화미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신정백(申正栢, 申正宇, 申隅)

- 생년월일: 1877 / 사망년월일: 1910. 3. 27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독립장(68)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출신이다.

1908년 3월 30일 전남 의병장 조서화(趙書華) 의진에 입진(入陣)하여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

1908년 4월 10일 전남 구례군 계사면(求禮郡 季肆面)에서 일본 관헌의 토벌대와 교전하였는데 당시 병력은 20명이었고 이 전투에서 2명이 전사하였다.

4월 16일 구례 죽곡면 동미리(竹谷面 桐漢里)에서 동지 20명과 함께 일본 기병 경찰대와 교전하였다.

6월 2일 죽곡면 마륵산(馬輪山) 중에서 일본 기병대 2명을 기습하여 사살하였다.

9월 20일 곡성군 목사동(木寺洞)에서 일본 수비대 10여명과 교전하였다.

당시 의병의 병력은 130명이었는데 이 전투에서 대장인

조서하 이하 2명이 전사하였다.

여태까지 의지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던 의병장이 전사한 후 신정백은 독립하여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통솔, 구례·곡성·낙안·남원 등에서 활동하였다.

11월 24일 곡성군 목사동 평리(坪里)에서 일본 토벌대와 40분간 교전 끝에 부하 5명이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 참가한 의병의 수는 40명이었으나, 이 싸움 뒤에 모두 흩어졌고, 신정백은 동미동으로 피신하였으나 곧 체포되었다. 체포된 후에도 그의 언동은 적에게 조금도 굴함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의거의 당연함을 적에게 설파하기까지 하였다.

1909년 10월 16일 구례·광주(光州)·목포·대구 등지로 이감되었다가 마침내 1910년 3월 27일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양원모(梁遠謨)

- 생년월일: 1858. 5. 22 / 사망년월일: 1942. 11. 3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대통령표창(96)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즈음 전남 곡성군 촌동면(村洞面)의 면장으로 재직하던 양원모는 국권회복을 위해 거의한 의병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1909년 8월 동면 선주산에 주둔하던 조규하(趙圭夏)의진에 군량을 조달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구례현병대와외 전투에서 조규하의병장이 순국하자 그 의로운 시신을 수습토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탐지한 일병에 의해 피체되고 말았다. 일병은 코에 물을 붓고 잔혹하게 구타하다가 실신하자 햇불로 전신을 지지는 등 금수같은 고문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너희들은 우리 나라의 원수이다. 힘이 없음을 한탄할 뿐이오 어찌 너희에게 보고하여 우리 선비의 기절(氣節)을 막겠느냐"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가혹한 고문 끝에 일군은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물러갔으며, 그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유건영(柳健永)

- 생년월일: 1883. 4. 12 / 사망년월일: 1940. 7. 24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애국장(90)
- 공적내용

유건영은 전남 곡성(谷城) 출신으로서 농촌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약관(弱冠)의 나이에 거유(巨儒)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과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그 때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사상과 구국을 위하여 사생취의(捨生取義)하는 덕행(德行)의 도를 배워 자신이 망해가는 조국을 건지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면암이 의거의 가치를 올리고 순창(淳昌)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전개하자, 면암 의진에 입진(入陣)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과부적으로 의진은 패배하고 면암과 임병찬(林炳瓚) 등은 대마도(對馬島)로 압송되고 의진이 해산되었다. 유건영은 시세가 의병운동 전개에 불리함을 깨닫고, 농촌에 들어가 일제의 삼엄한 감시하에서도 청년자제들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을 고무하여 장래 민족의 동량으로 성장시킬 것을 꾀하였다.

그후 일제의 책동에 의하여 '한일합방'이 되고, 이어서 만주침략을 감행한 뒤 총독부(總督府)는 "내선일체 일시동인(內鮮一視同仁)"이니 하는 미명(美名)아래 사실상 한민족을 영원히 말살시킬 음모를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추진하였다.

이에 유건영은 극력 반대하여 끝내 저지하겠다는 요지의 항의문(抗議文)을 전달하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일제의 모진 박해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끝내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막을 길 없어 차라리 자결(自決)하여 한민족의 기백(氣魄)을 적에게 알리고자 하여 1940년 7월 24일 자결 순국(殉國)하였다.

해방 후 곡성(谷城)의 뜻있는 인사들이 그의 공적(功績)을 기리기 위한 무산사(武山祠)라는 사당(祠堂)을 세우고 해마다 순국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유해용(柳海瑠, 柳海良)

- 생년월일: 1884. 1. 2 / 사망년월일: 1938. 9. 5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대통령표창(93)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06년 윤(閔) 4월 13일 전남 태인(泰仁)에서 최익현(崔益鉉) 의병장이 기의(起義)하자 입진(入陣)하여 활동하였다. 4월 20일 순창(淳昌)에서 관군과 조우하여 의진은 해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임병찬(林炳贊) 등 12명과 더불어 최익현 의병장을 호위하다가 전원 피체되었다. 1906년 6월 26일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군사령부(日本軍司令部) 육군이사(陸軍理事)에 의하여 태형(笞刑) 10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윤정구(尹正九)

- 생년월일: 1882. 3. 22 / 사망년월일: 1953. 10. 24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애국장(90)
- 공적내용

전라남도 곡성(谷城) 출신이다.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당시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황제가 폐위 당하고 일제의 책동에 의하여 한국군이 해산 당하자 통분함을 금치 못하고 항일 구국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의병부대에 참가하여 전북 남원(南原), 전남의 곡성·구례(求禮) 등지에서 동지 공성찬(孔成贊)·임세묵(林世默) 등 7명과 함께 지방의 부호를 방문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1909년 10월 일헌병에게 그간의 행적이 탄로되어 체포된 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장기문(張基文)

- 생년월일: 1924. 10. 17 / 사망년월일: ?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광복군
- 서훈: 애족장(90)
- 공적내용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43년 10월 중순 일제에게 강제로 징집당하여 중국 산

서성(山西省) 안읍지구(安邑地區)주둔 일본군 3541부대에 배속되어 있던 중 일본군 병사로부터 중국 중경(重慶)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와 광복군(光復軍)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들은 뒤 광복군으로 입대할 것을 결심하고 1944년 12월 일본군을 탈출하였다.

그후 1945년 4월 중국 중경에 도착하여 우선 토교대(土橋隊)에 입대하고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光復軍總司令部 警衛隊)에 배속된 뒤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정재건(鄭在健)

- 생년월일: 1843. 5. 20 / 사망년월일: 1910. 9. 4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순절
- 서훈: 애국장(91)
- 공적내용

전라남도 곡성(谷城)군 옥과(玉果)면에서 태어났다.

188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전적(典籍)과 지평(持平)을 지내었다.

1894년 시국이 혼란해짐을 보고 사직하여 고향에 돌아와서 학문을 닦다가 옥과와 곡성이 합군되어 향교(鄕校)가 폐쇄되자 군내 유생들을 모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실패했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여 나라가 망하자 통분을 금치 못하여 나라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자결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조영선(趙泳善)

- 생년월일: 1879. 6. 25 / 사망년월일: 1932. 5. 24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애족장(90)
- 공적내용

조영선은 전라남도 곡성(谷城) 출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담양(潭陽)에서 최익현(崔益鉉)과 그리고 용추사(龍湫寺)에서 송사 기우만(奇宇萬)을 비롯한 호남선비 50여명과 함께 천하대사를 의논하였다.

순창(淳昌) 일대에서 최익현의 의진이 명성을 떨치자 의



진에 입진하여 정읍·순창·곡성 등지에서 병력을 보강하고 순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순창에 이르자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의병해산을 권고하는 황제의 칙서와 고시문(告示文)을 전달하여 왔다.

한편에서는 읍의 동북쪽에서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와 돈헌 임병찬(鎔軒 林炳瓚)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보니 왜군이 아니라 전주와 남원 방면에서 들어온 진위대였다.

면암은 구국을 위한 의거인데 관군과 더불어 전투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물러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관군은 포격을 가하였고 의진은 모두 흩어졌다. 면암의 주위에는 조영선을 비롯한 12인의 문인들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이들은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관군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 끝내 관군에게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었으며 조영선은 태형(笞刑) 100도의 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조우식(趙愚植)

- 생년월일: 1870. 12. 10 / 사망년월일 1937. 5. 7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애국장(91)
- 공적내용

전라남도 곡성(谷城) 출신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1월 전라북도 순창 구암사(龜岩寺)에서 전주 의병대 및 남원 의병대와 함께 적과 접전하였다.

음력 4월 13일(양력 6월 4일) 태인(泰仁)에서 의진은 구성한 면암의 의진이 정읍(井邑)·순창(淳昌)·곡성(谷城)을 거쳐 순창으로 되돌아왔다.

조우식은 이즈음 면암의 의진에 합진하였다.

4월 20일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의병을 해산할 것을 권유하는 황제의 칙지(勅旨)와 고시문(告示文)을 전해 왔다. 이때 읍의 동북쪽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임병찬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보니 왜군이 아니라 전주·남원의 진위대 군사들이었다.

면암은 관군인 진위대와 접전할 수 없다며 그들에게 물러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진위대는 의진을 향하여 포화를 퍼부어 의진은 모두 흩어졌다.

이때 중군장 정시해(鄭時海)가 전사하였다.

면암의 곁에는 조우식을 비롯한 12인의 문인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공격해 들어오던 관군에 의하여 이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았다.

조우식은 8월에 태(笞) 100도의 형을 받고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유인수(柳寅秀)

- 생년월일: 1860. 3. 17 / 사망년월일 1927. 8. 26
- 출생지: 전남 곡성
- 운동계열: 의병
- 서훈: 건국포장(01)
- 공적내용

선생은 서기 1860년 3월 17일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인수 후명은 병채, 보명은 병태, 호는 청호이며 자는 문휴다. 어려서부터 한문수학을 하고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형제를 구하며 살다.

- 27세 : 1886년 주거를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내동으로 옮기다.

- 43세 : 1902년 공의 조부 증사헌부감사 위 인의 효자여관을 세우다.

- 47세 : 1906년 면암 최익현(崔益鉉)의 의군이 곡성에 행진할 때 의거자금을 후원하다.

- 49세 : 1908년부터 5년동안 세차례에 걸쳐 정재(滯齋) 이석용(李錫庸) 의병장에게 의거자금 38냥을 지원하다.

(현시가 환산 1억 9천만원으로 옥답 19두락 값임 - 당시 한 부락에 논 20마지기 지은 집은 큰 부자로 생각하던 때였다)

동향의 안훈, 안재영, 조영선(趙泳善), 조우식(趙愚植) 등과 임자동밀맹단(壬子冬密盟團)에 가맹 활동하다.

- 57세: 1916년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170번지로 이사하다. 부옹(父翁)은 신약한 아들을 걱정하여 독학하지 않았으나 집안에 있는 천여권의 장서를 읽고 청호유고(菁湖遺稿)를 남겼다.

- 68세: 1927년 8월 26일 자택에서 별세하다.

2001년 8월 15일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다(제 1839호).

# 남방(南方)의 거진(巨鎭) 나주(羅州)와 나주시문화원

김준혁(나주시문화원 사무국장)

**나**주는 역사 이전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선사시대부터라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중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하면서 강과 인류문명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밭을 갈다가, 논을 파다가, 길을 만들다가, 집터를 닦다가 땅 속에 묻혀 있던 많은 유물이 긴 잠을 깨어나서 세상과 만나는 곳이 바로 나주다.

지금까지 나주에서 출토된 유물만 한 군데 모은다면 거대한 박물관에 전시하고, 수장고를 다 채우고도 남을 분량일 것이다.

나주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나주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알고 있는 삼국시대에 낙동강 유역의 가야문명이 존재하였고, 가야문명이 신라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도 영산강 유역은 백제와는 다른 문화가 6세기 경까지 존재하였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문화는 커다랗고 두꺼운 옹기를 관으로 사용하는 옹관 고분을 중심으로 현재 속속 발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유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주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경주와 김해, 부여 등과 같이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으로 공시를 해야 마땅하다.

현재 영산강 유역은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부여문화권 등과 함께 국가적인 새로운 문화권으로 지정되어 거대한 역사와 문화가 조명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고려말 나주의 거평부곡으로 유배되었던 삼봉 정도전은 나주를 일컬어 남방(南方)의 한 거진(巨鎭)이라고 표현하였다.

그 만큼 나주는 그 당시에는 거대한 도회지로 모든 문물과 산물이 집산되는 지역이었으며, 그것은 조선조 말까지 계속되어서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인구 30만의 큰 지역이었다.

## 나주문화재연구소

지난 국민의 정부때 나주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문화관광부는 나주지역에 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당시 신낙균 장관이 결재하여 행정자치부에 직제안을 넘겼으나 보류되었고, 최근 광주광역시의 문화재연구소 유치가 본격화되면서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화재연구소는 서울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고, 경주문화재연구소, 창원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의 지방문화재연구소가 있다.

문화재청은 2002년 4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전 청사로 옮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서울과 충주와 나주에 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들어서 나주문화재연구소가 슬그머니 호남문화재연구소로 둔갑시킴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도시 나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나주에 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한다면 도내의 모든 시군에서는 당연히 들어설 곳에 설치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광주에 설치한다면 많은 시군에서는 대단히 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 나주시문화원

나주시문화원은 현재 나주에서 발굴된 수많은 문화재를 다시 나주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수많은 대학박물관에 있는 나주의 문화재들이 수장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는 당연히 나주로 되돌아와야 한다.

나주에 전시시설이 없다면 국가는 당연히 박물관을 설치해야 하고, 그 박물관에 나주의 문화재들은 전시되어야 하고, 그 박물관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나주의 참모습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용산에 짓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예산 투입이 끝나는 대로 나주에 국립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나주에서는 모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주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화재연구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광주광역시라는 거대한 공룡과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와의 고독한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쟁에 대한 전남도내 시군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마땅히 우리는 여러 시군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상·덕산고분  
하·석전대제  
좌·금동관



# 지리산권이 전·남북의 오지로, 경남의 오지로 천대받는.....

남원문화원장 노상준

2003년 5월 24일 남원문화원은 남원의 유일한 대학인 서남대학교와 결연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전통문화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남원의 역사문화체험교육을 하였다.

서남대학교와 지역사회가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생(相生)하기 위한 대단한 뜻 있는 문화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남대학에서는 향토문화의 이해란 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을 접수하여 많은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였다. 그 중 당일 향토문화강좌와 유적지 답사에 참여한 수강생은 130명이었다.

08:50분에 캠퍼스에 집결하여 남원의 동부권 답사에 나섰다.  
봉대리 솟대 - 흥부발상지 - 가야시대 고분군 -

유곡리 장승 - 실상사 - 점심 - 피바위, 황산대 첩비지, 국악성지 - 춘향묘 - 호경리 당산 - 궁장현 - 오늘이소서 노래 탑을 답사하고 차량이동 간 남원문화의 역사 문화를 설명하였다.

남원의 서남대학이 왜 서남대학이라고 하는가는 지형학적으로 우리나라 서남부에 위치한 지리산권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설립되었음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의 4공화국 시절 한국의 서남부(지리산권 주변) 남원, 함양, 구례, 하동, 산청, 곡성일부를 포괄하여 서남도로 행정구획을 계획하고 마치 북한의 양강도(백두산 유역), 자강도와 같이 특정 도(道)를 만들려고 하였다. 1975년 당시 태완선 부총리가 이 계획을 발표하였고,

1976년 평가교수단이 남원에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1977년 유정회국회의원 40여명이 래남하여 구체적인 행정 구획안이 연구발표 되었으나 정치적 혼란에 따라 입안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도(道), 또는 특별구가 확정되었다면 남원은 역사 이래 어떻게 모습이 달라졌을까 생각하여본다. 지금이라도 동·서 문화교류, 지역감정해소, 특수문화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쓰면 통하는 나라, 우리도 떼를 써 보아야 하는가?

남원은 옛부터 지리산권 문화를 주도하였던 곳이다. 삼국시대 백제의 남방문화를 통일신라때는 남원경으로 찬란한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으나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별 볼일 없는 고장이 되었다. 지리산 주변자치단체장들이 사촌회를 조직, 지리산 문화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누구에게 탓 할 것인가? 위정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은 논의하면서 한국 고유 문화보존과 특정지역의 문화보존을 위한 대안은 생각지 않는지! 한국이 문화국으로 지켜가려면 지리산권 문화를 때문지 않게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

지리산권 문화로 남원은 우리나라 4대 고전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만복사저포기, 흥도전, 판소리문화의 발생지이며, 문화재로는 국보1점, 보물24점, 사적6, 중요민속자료3점, 천연기념물 2점을 포함 110점의 문화재가 있다.

지리산권 주변의 문화재 점유율을 보면, 함양군은 보물 4점을 비롯해 국가지정 12점, 지방문화재 48점 등 총 60점이, 산청군은 보물 11점을 비롯해 국가지정 14점, 지방문화재 60점 등 총 74점, 구례군은 국보 10점을 비롯해 국가지정 21점, 지방문화재 24점 등 총 45점, 곡성군은 보물 7점을 비롯해 국가지정 8점, 지방문화재 22점 등 총 32점의 지정 문화재와 유적이 전해오고 있다. 가칭 서남도가 생기면 문화도(文化道) 또는 관광도(觀光道)가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무엇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칭 서남도(지리산 특별구)의 행정구역 획정을 생각해 보셨는가?

서남대학은 지리산권 남원, 구례, 곡성, 함양, 산성, 하동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서남권(지리산권)대학으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유일의 전통문화전승보전을 위한 대학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낙후된 지리산권 경제 문화발전에 기여가 되리라 생각된다. 지리산권이 전·남북의 오지로, 경남의 오지로 천대받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할머니께 드립니다 (오춘정 / 곡성실고 원예3년)

할머니...

이렇게 가만히 불러도 항상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주셨죠. 언제나 할머니 자신은 생각도 않으시고, 어린 동생들과 저에게 신경 쓰시곤 하셨던 할머니.

할머니! 저 춘정이에요.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났다고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큰손녀 춘정이에요. 집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차마 말로 하지 못했던 말들 이렇게나마 편지로 대신해 봅니다.

할머니! 올해로 8년째지만 여전히 아빠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럴 때마다 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에만 있었잖아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할머니 기억속에 고이 남겨두셨던 당신의 아들 이야기가 왜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아픔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흐느껴 우시는 할머니의 그 어깨에 손을 얹어 드릴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어깨에 손대는 순간에 저도 같이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이럴 때 엄마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텐데..... 오늘따라 할머니의 손은 왜 이리도 두껍고 거칠은지.....

죄송해요. 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동생들 뒷바라지에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밭에 나가시는 그 뒷모습에 오늘도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제가 바보같다는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제 처지가 저를 힘들게 해요. 할머니.

우리들이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할머니!

이웃 사람들이 가끔 놀러오시면 말뚝이 생겨서 좋으시다고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떠올리시는 할머니! 우리가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리 시간에 쫓겨 지낸다 해도 말뚝이 되어드릴게요

할머니와 저, 조금씩 마음을 더 열기로 해요. 이제까지 힘들었던 것 생각하면 눈물과 서러움뿐이겠지만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저희들에게 꾸중도 하셨는지 이제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요즘 할머니 방에 불이 자주 켜지는 걸 보게 되요. 살며시 열린 문 사이로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전히 아빠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우시던 모습이셨어요. 이제 그만 아파하셨으면 해요.

아빠의 빈자리를 메워드릴 수는 없지만

따뜻한 미소와 즐거운 말뚝이 되어 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할머니, 편지엔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만 접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웃으시면서 사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오월에, 손녀 춘정 드림



◇ 곡성실고소식 제16호에서 발췌 게재하였으며, 오춘정학생은 90세계 넘으신 할머니와 어린동생들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해 가는 소녀가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 옥과공공도서관



## 1. 연혁

- 가. 2001. 1. 30. 옥과공공도서관 청사 준공
- 나. 2001. 7. 23. 도서관 개관
- 다. 2002. 7. 1.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실 운영
- 라. 2003. 6. 27. 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정

## 2. 시설

- 가. 위 치 :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410-2번지
- 나. 대 지 : 1,825㎡
- 다. 연건평 : 995㎡(301평, 지하 1층, 지상 2층)
- 라. 구 조 :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간행물실

## 3. 보유자료

- 가. 도 서 : 9,473권
- 나. 비도서 : 신문 10종, 주간지 2종, 월간지 8종
- 다. 시청각 자료 : CD 3점, 비디오테잎 450점
- 라. 멀티미디어 기자재 : PC 16대, TV 1대, VTR 1대

## 4. 도서관 이용자 현황

- 가. 이용자 현황
  - 2002년도 (127일 개관) : 13,943명 이용
  - 2003년도 (148일 개관) : 18,285명 이용
- 나. 2003년 1일 평균 : 124명 (2003. 6. 30현재)
- 다. 도서대출증 발급 : 805명 (2003. 6. 30현재)

## 5. 2003년 도서관 사업

- 가. 2003. 상반기 문화행사

- 제1회 한문교실 : 초등학생 40명 수료
- 해양생물 세밀화 전시회 : 주민 400여명 관람
- 수지침 건강교실 : 주민 30명 수강

## 나. 2003. 하반기 문화행사 계획

- 매주 토요일 우수 영화 비디오 상영
- 8. 6 : 사랑의 문화봉사단 공연
- 8. 6. ~ 8. 8. : 한지공예 작품 전시
- 8. 26. ~ 8. 30. : 한지공예 교실 운영
- 9. 12. ~ 9. 21. : 우수만화 전시회
- 9월중 :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퀴즈대회
- 10월중 : 제2회 한문교실
- 11월중 : 수채화 교실 운영
- 12월중 : 종이접기 교실 운영

## 6. 조직

- 관장 : 윤현상
- 사서 : 김유정
- 사무담당 : 서훈태
- 열람담당 : 박윤규

## 7. 도서관 시설 이용안내

- 가. 종합자료실 : 09:00 ~ 20:00
- 나. 전자정보실 : 09:00 ~ 20:00
- 다. 간행물실 : 09:00 ~ 20:00
- 라. 열람실 : 09:00 ~ 22:00
- 마.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공휴일

# 곡성문화재 안내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우리 문화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 적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273호)



• 광자대사탑(보물 274호)



• 광자대사비(보물 275호)



• 태안사 바라(보물 956호)



• 가곡리5층석탑(보물 1322호)



• 도림사괘불탱(보물 1341호)



• 태안사동종(보물 1349호)



## 국가 지정 문화재

### 보물

- 1 적인선사조륜청정탑 (273호 / 태안사)
- 2 광자대사탑 (274호 / 태안사)
- 3 광자대사비 (275호 / 태안사)
- 4 태안사 바라 (956호 / 태안사)
- 5 가곡리5층석탑 (1322호 / 오산면)
- 6 도림사괘불탱 (1341호 / 곡성읍)
- 7 태안사동종 (1349호 / 태안사)

### 중요 무형문화재

- 8 곡성돌살나이 (32호 / 김점순 / 석곡면)
- 9 낙죽장도 (60호 / 한병문 / 목서동면)

### 중요 민속자료

- 10 군지촌정사 (155호 / 입면)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 유형문화재

- 1 총열문 (51호 / 입면)
- 2 태안사능파각 (82호 / 태안사)
- 3 태안사일주문 (83호 / 태안사)
- 4 옥과향교 (109호 / 옥과면)
- 5 함허정 (160호 / 옥과면)
- 6 도동묘 회현실기목판 (210호 / 오곡면)

### 무형문화재

- 7 죽동농악 (35호 / 빅대업 / 곡성읍)

### 지방기념물

- 8 용산재, 덕양사 (56호 / 목서동, 오곡면)
- 9 도림사 계곡 (101호 / 곡성읍)

### 민속자료

- 10 옥과성황당목조신상 (2호 / 옥과면)

### 문화재자료

- 11 도림사 (22호 / 곡성읍)
- 12 태안사 (23호 / 죽곡면)
- 13 관음사 (24호 / 오산면)
- 14 유월파장군 정열각 (25호 / 옥과면)
- 15 곡성향교 (27호 / 곡성읍)
- 16 석곡리석불입상 (28호 / 석곡면)
- 17 도동묘 (29호 / 오곡면)
- 18 덕신사 (120호 / 오곡면)
- 19 수성당 (129호 / 오곡면)
- 20 수도암차나무 (147호 / 옥과면)
- 21 영류재 (167호 / 죽곡면)
- 22 태안사 3층석탑 (170호 / 죽곡면)





- ② 1 적인선사조륜청정탑
- ③ 2 광자대사탑
- ⑫ 3 광자대사비
- ⑫ 4 태안사 바라
- ⑫ 7 태안사동종



# 전국 문화원 2003년 신간 안내

- |                        |                          |                       |
|------------------------|--------------------------|-----------------------|
| 1 중량문화원 중량의 구비설화       | 38 기장문화원 고리의 역사와 문화      | 76 대전동구문화원            |
| 2 천안문화원 햇불낭자 유관순       | 39 이천문화원 설봉문화            | 3.16 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시위운동  |
| 3 부산강서문화원 강서문화         | 40 이천문화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 77 대전동구문화원 동구의 산성     |
| 4 청주문화원 청주문화기행         | 41 금정문화원 향토문화(청룡노포동 편)   | 78 서울중구문화원            |
| 5 청주문화원 청주문화           | 42 서산문화원 서산의 숨결          |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7집 명동변천사  |
| 6 강북문화원 강북문화           | 43 양주문화원 양주형일민족운동사       | 79 청원문화원 청원문화         |
| 7 여주문화원 고종순종실록(여주편)    | 44 관악문화원 인헌문화            | 80 홍성문화원 홍성문화         |
| 8 여주문화원 여주사료(광해 - 철종)  | 45 관악문화원 관악문화            | 81 고령문화원 고령의 서원과 정·재  |
| 9 수원문화원 수원사랑           | 46 정읍문화원 정읍문화            | 82 고령문화원 고령문화         |
| 10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사랑        | 47 정읍문화원 정읍향리지           | 83 장성문화원              |
| 11 부평문화원 문화부평          | 48 진도문화원 예향진도            | 장성사료집-조선왕조실록 장성편      |
| 12 옥천문화원 관성문화          | 49 진도문화원 진도신문기사자료집       | 84 화성문화원 화성시 보호수 편람   |
| 13 옥천문화원 옥천향토사자료집      | 50 인천지회 인천문화             | 85 울진문화원 울진문화         |
| 14 대전서구문화원             | 51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사랑          | 86 수원문화원              |
| 서구의 민속예술과 마을신앙         | 52 정선문화원 국역 정선총쇄록        | 구한말·일제하 수원관계 신문자료집    |
| 15 하남문화원 하남금석문집        | 53 포천문화원 포천문화            | 87 성남문화원 성남지역의병조사연구   |
| 16 영암문화원 월출의 맥박        | 54 양구문화원 양구문화            | 88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연구       |
| 17 평창문화원 평창의 민간음악      | 55 영암문화원 영암문화            | 89 성남문화원 정일당유고        |
| 18 평창문화원 평창의 의식주       | 56 영동문화원 연동문화            | 90 성남문화원 판교마을지        |
| 19 춘천문화원 춘천문화          | 57 영동문화원 경제선생실록          | 91 광신문화원 용아박용철의 예술과 삶 |
| 20 삼척문화 실직문화           | 58 거창문화원 거창문화            | 92 함평문화원 함평문화         |
| 21 영월문화                | 59 군산문화원 군산문화            | 93 함평문화원 함평의 현대문학     |
| 영월지방 민속신앙과 서낭당조사       | 60 여주문화원 여주문화재대관         | 94 칠곡문화원 국역 칠곡지       |
| 22 충주문화원 증원문화          | 61 의성문화원 제12회학생문예작품집     | 95 장흥문화원 칠찬산          |
| 23 노원문화원 노원문화          | 62 의성문화원 의성의 독립운동사       | 96 거창문화원 거창군의 마을신앙    |
| 24 하동문화원 하동문화          | 63 완도문화원 조선왕조실록 완도군편     | 97 울주문화원 울주연구         |
| 25 대전서구문화원 갑천문화        | 64 완도문화원 청해문화            | 98 시흥문화원 시흥문화         |
| 26 경주문화원 경주문화논총        | 65 장흥문화원 장흥문화 2002 제24호  | 99 유성문화원 문화유성         |
| 27 제주문화원 제주문화          | 66 안동문화원 안동문화 제10집       | 100 여주문화원 여주의 민속과 전승  |
| 28 경주문화원 경주문화          | 67 가평문화원                 | 101 여주문화원 여주의 금석문     |
| 29 인재문화원 인재문화          | 6.25 한국전쟁중 가평지구전사        | 102 여주문화원 여주와 함께한 사람들 |
| 30 인재문화원 땀목            | 68 의령문화원 의령의 구비문학        | 103 구미문화원 금오문화 11     |
| 31 조치원문화원 연기의 향기       | 69 공주문화원 애향 공주문화         | 104 송파문화원 송파문화        |
| 32 인천문화원 문화인천          | 70 사천문화원 사천문화            | 105 경기도지회 마을신앙과 제당    |
| 33 영월문화원 내성의 맥         | 71 서산문화원 서산의 숨결          | 106 공주문화원 계룡산의 굿당     |
| 34 김영섭(동대문) 들꽃이 나를 울린다 | 72 포천문화원 포천의 문화유산        | 107 김제문화원 성산문화        |
| 35 전주문화원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 73 울주문화원 울주문화 제2집        | 108 김제문화원 우리고장 인물사    |
| 36 임실문화원 정재이석용선생문집     | 74 영덕문화원 영덕문화 2002년 제13집 | 109 곡성문화원 국역 조선환여승람   |
| 37 경기도지회 경기도 논쟁소리      | 75 진안문화원 진안의 마을유래        | 110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 동지" |



고객서비스를 제 **1**로 삼는 -

# 종합신문판매회사 곡성지국

판매신문 - 동아일보, 한겨레, 대한매일, 스포츠서울,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매일경제, 한국경제

구독문의 / 061-363-1488

살아있는 정보, 효과적인 홍보 -  
**제일광고기획**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실사현수막시스템도입**

▶ 실사현수막 ▶ 고급간판 ▶ 네온싸인 ▶ 옥내·외 특수광고물 제작 ▶ 선전아취탑 ▶ 기념품·사패



**제일광고기획**

TEL. 062 362 5573 FAX. 061 363 5573

**H·P: 011 607 5573**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92-29

E-mail. jeill21@hanmail.net